

분고

대중문화로 만난 한국, 한글로 소통하다

김나영(여주대학교 한국어학원 강사)

1. 세계인의 한국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과 노동자, 결혼이민자로 나 뉜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 입학과 졸업 후의 취직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원활한 직장 생활과 비자(Visa)연장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가정생활의 적응이고 간혹 취직이나 귀화를 위해 한국어 를 배우기도 한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목적이 각각 차이가 있어 보이나 확대해서 보면 공통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바로 한국 생활의 적응이다.

1) 유학생들의 한국어

한국어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한류를 타고 한국이나 한국 연예인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자연스레 부여되었다.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가요, 한국 영화 등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2010년대 말부터 유학생들이 줄어들 무렵 한국의 아이돌 가수 BTS(방탄소년단)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어 배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통한 한국어 배우기는 단기간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매우 빠르고 넓게 퍼져 나갔다. 그 실례로, 2019년 프랑스 파리

에서 BTS가 공연을 할 때 프랑스의 8만 관중이 한국어로 열창을 했고, 같은 해 영국 런던에서 6만 관중이 한국어로 떼창했는데 실황중계로 14만 명이 시청한 것까지 따지 면 20만 명의 '아미'1)가 함께 한국어로 떼창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 국어 발음만 연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각종 인터넷 플랫폼에서 BTS로 한국어 배우기 를 보여주고 있고 뉴스와 현지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BTS 이후로 늘었다는 것은 이야기한다. 한국어 BTS로 인해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으 며 이것은 '아미'들의 한국어 학습 내적동기가 되어 한국어 배우기로 이어졌다.

A씨(중국, 30대 남)는 2008년 대전대학교 한국어센터로 유학 온 학생이었다. 중국에서 성적이 좋지 못해서 실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졸업 후 어학원에 온 것이다. 이학생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읽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숫자 번호판밖에 없었다고한다. 한글이 중국어처럼 문자를 배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2) 일주일이채 되기 전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붙으니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외국어를 할 수 있으니 고향에 가서도 유학생으로서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B씨(중국, 20대 남)는 여주대학교 한국어학원에 유학 온 학생이었다. 중국에서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한국을 동경했다고 한다.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는 특별한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잘 적응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K-pop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씨는 한국어학원을 수료한 후에 건국대로 편입을 했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을 땄다. 지금은 '한경희 생활과학'에 취직해서 중국 무역관련 업무로 3년째 근무 중이다.

¹⁾ BTS 팬클럽 이름이다.

²⁾ 모든 어문 교육은 간체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처음에 발음을 배우고, 글을 하나하나 배운후 의미에 맞는 '쓰기 시험만 본다. 중학교 입학 후 읽기, 쓰기 시험을 본다. 우리나라의 받아쓰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끝나는 것에 비해 중국에 서는 글자 쓰기가 중학교 입학 시험에도 있을 정도이다. 이런 표의문자를 한국에서는 '한자능력시험'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면 두뇌발달에 좋다고 홍보한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돼야 하고 노동 착취나 학대를 안 받으려면 스스로 알아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유학생과 달리 평일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대부분이 농장이나 3D업체인 공장에 다니는데,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그것에 대해 고용주에게 따지거나 외부에 알릴수 없는 처지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

C씨(스리랑카, 30대 남)는 스리랑카에서 수학 선생님이었다.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지인과 은행에 돈을 빌려 수술을 시켜드렸다. 감당할 수 없는 원금과 이자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주말에 '신륵사'를 가겠다고 영어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가 여주이주민센터를 소개받게 되었다.

C씨가 일하는 곳은 개인이 대신면에서 운영하는 쇠를 깎는 공장이었다. 어느 날같이 일하는 친구가 허리가 아픈데 사장이 병원에 보내 주지 않는다고 여주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C씨의 회사에 가 보니 C씨와 함께 일하는 인도 사람(D씨)이 있었다. B씨는 이주민센터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웠지만 D씨는 몸짓과 C씨를 통해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사장은 D씨가 일도 잘 못하고 꾀를 부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왜 덩치가 작은 사람을 보내주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있었다. 사장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D씨를 놔 주었다.3)

그 뒤로 C씨의 노동은 배가 되었다. 어느날 B씨가 수첩을 보여주는데 근무시간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글 이름의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도 적혀 있었다. C씨는 D씨와 다르게 한글을 배워서 부당한 업무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고,월급명세서의 내역을 읽어서 잘못된 정산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뒤 '고용노동부-성남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C씨는 자유의 몸이 되어 더이상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없는 컨터이너박스에 살지않아도 되었다. 현재 안성에 있는 공장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받고 있다. C씨가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주말 여주이주민센터를 찾아 왔다.실처럼 가는 금목걸이를 선물로 사 온 것인데 사실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가 기록해 놓은 한글들이었다.

E씨(우즈베키스탄, 30대 남)는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법조인을 꿈꾸던 법학도는 소년가장이 되어 낯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10여년을 보냈다. 유달리 명석했던 친구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한글과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과정에 부러움을 갖기도 했고, 이주민지원센터의 우즈베키스탄 다문화강사가 되어 자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본국으로 귀환하고, 결혼한 뒤에도 시시콜콜한 소식들을 전해오던 그의 목소리가유난히 들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한국어 통역사로 선정되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교부장관회의에 통역을 담당했다고 한다. 강경화 장관에게 '어쩌면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느냐'는 칭찬도 들었다고 했다. 확인이라도 시켜주려는 듯 강경화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진들도 보내왔다.





(3)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보통의 결혼이민자는 여성이다. 한국의 결혼 이민자들은 1990년대 농촌에서 중국조 선족 여성들을 시작으로 아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확대됐다. 결혼 이주민은 다른 이주민과 달리 결혼이라는 특수 조건하에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를 알아가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통합된다. 그렇다보니 가정 생활부터 육아까지 전반적

³⁾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이 있지만 소속회사의 동의가 있어이만 자유의 몸으로 체류기간 내에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 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자의적으로 회사를 이탈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고된다.

인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녀들에게 한국은 낯설고 공포스럽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한국 어 습득이 빠른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에서 고향 친구나 타향 친구들을 사귀고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F씨(베트남, 20대 여)는 10년 전에 여주에 시집을 왔는데 여주이주민센터에서 처음 만났다. 한글을 가르치는데 다른 학생들처럼 영어나 모국어로 한글의 음가를 적지 못했다. F씨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워 말을 할 수 있을 때 F씨가 베트남 문자를 쓰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F씨의 친정은 매우 가난해서 어린 F씨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켰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F씨는 동네 애들이 학교에 가면 본인도 학교에 가서 교실 담 너머 공부를 하곤 했는데, 그 마저도 학교에서 도강을 못하게 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결혼 이민지로 한국에 와서 문자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여주이주민지원센터에서 배우다 보니 실제로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기록할 수 있었다.

영어나 베트남어를 모르는 F씨는 한글 자모의 음가를 기록하지 못해서 처음에 남들보다 느리게 한글을 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인지4)의 말처럼 금방 한글을 깨치니 그 뒤로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었다. 이것으로 문자를 몰라 남들의 무시를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귀화 시험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여주이주민센터를 공부방처럼 드나들었다. F씨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날인가 F씨가 약을 들고 이주민센터에 온 적이 있었다.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면 아이들에게 이 약을 먹이는 데 이 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수면제'였다. 한글을 배운 후부터는 먹이는 약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무엇을 먹이면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⁴⁾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 可浹旬而學)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2. 외국인들이 경험한 한글의 우수성

한국어 강사 G씨(한국, 40대 남)가 일본에서 어학을 배우는데 유학 온 학생들 중 독일인이 있었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김에 외국어 하나 더 배우자고 해서 다국의 학생들과 독일어 배우기 시작했다.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G씨 넷이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공부했다. 독일 친구가 발음을 하면 각각 모국어로 그 발음을 적어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배울 때는 넷이 모두 같은 발음을 했으나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 지난 주에배운 것을 발음을 하니 일본인과 중국인은 다른 발음을 하고, 미국인과 G씨는 비슷한 발음을 했으나 G씨가 더 정확했다고 한다. 특히 '풀어쓰기'5)를 하는 미국인보다 '모아쓰기'를 하는 G씨가 더 빨리 발음한다고 했다.

그 뒤 G씨는 한국어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한글의 우수성이다.

1) 표의문자(表意文字)이인 중국어

중국어는 고립어(孤立語, isolating language)⁷⁾로서 문자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발음이지만 성조(聲調)⁸⁾로 의미의 변별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중국 영화나 중국 드라마는 중국어 자막이 있어야 중국인들이 대사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외국 영상이 아닌데도 중국어 자막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중국 유학생들을 보고 처음에는 참 신기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표의 문자이기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문자를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중국이 문맹률⁹⁾

⁵⁾ 만일 한글을 풀어쓰기로 한다면 현행 지형(字形)을 풀어서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것으로 '훈민정음'을 'ㅎㅜㄴㅁ ㅣㄴㅈㅓㅇㅇㅡㅁ'으로 쓴다는 것이다.

⁶⁾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고대의 회화 문자나 상형 문자가 발달한 것으로 한자가 대표적 이다.

⁷⁾ 언어를 형태론적 특징에서 볼 때에, 어형 변화나 접사 따위가 없고, 그 실현 위치에 의하여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가 결정되는 언어.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 따위가 있다.-국립국어원-

여러 언어를 계보적으로, 즉 어족(語族)의 견지에서 분류하지 않고 구조나 형태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고립어(孤立語)·교착어(膠着語)· 굴절어(屈抗語) 등 3종류로 크게 나뉜다. 고립어에서는 낱말이 그 어떤 형태상의 변화가 없이 글 기운데 나타나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는 어순에 의해 표시된다. 대표적 고립어로는 중국어를 들 수 있는데, '我看書'를 한국어의 '나는 책을 읽는다'와 비교해 보면 한국 어에서는'나'에 '는'이, '책'에 '을'이 참가되어 '나'와 '책'의 문법적인 기능이 나타나 있다. 영어의 'I read a book.'에 있어서도 'I'는 '나'라는 뜻 외에 '는'(주격)의 뜻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의 '我'에는 '나는'이나 'I'처럼 문법적인 기능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러나 영어에서도 대명사 대신 명시가 오면 그것이 어형상으로 주어라고 구별이 되지 않고, 중국어처럼 어순(語順)이 문법적으로 중요하 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도 문법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나 형태적 분류가 반드시 엄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산백과는

⁸⁾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다.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진다. 중국어의 사성(四聲) 따위가 있다.

⁹⁾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 총인구 3.6억 명 중 80%에 해당하는 2.9억 명이 문맹일 정도로 문맹률이 심했다. 즉 10명 중 8

이 높은 이유이다.

중국어로는 모든 소리를 옳게 적을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코카콜라(Coca-cola)'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코카콜라'를 중국어로 쓸 때 가장 비슷한 발음인 '可口可乐(가구가락)'10)이라고 쓴다. 또 '百事可乐(Pepsi-Cola)'11), 芬达(Fanta)12)도 마찬가지다. 그런 중국어로 외국어의 발음을 기억하고자 적는다면 나중에 잘못된 발음의 외국어를 말하게 된다. 그런 문자를 받아들여 변형해서 쓰는 일본어도(물론 받침에 대한음가(音價)가 없기는 하지만) 표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2) 한국어의 모아쓰기

한국어는 음소(音素)¹³⁾문자¹⁴⁾라서 모든 소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소리를 만들어서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음소문자는 표음문자(表音文字)¹⁵⁾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음소문자 중 알파벳은 한글에 비해 빠르게 읽기 어렵다. 이것은 표음성의 차이라기보다는 표기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알파벳으로 '풀어쓰기'를 하는 언어 중 대표적인 언어인데 철자가 많은 단어의

명이 문맹인 셈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의 문맹률을 줄이기 위하여 간체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맹률이 6.57%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¹⁰⁾ 可口可乐[kě kǒu kě lè, 크어커우크어레, 발음을 버슷하게 하면서 동시에 '마시면)입이 즐겁다'라는 뜻까지 부여되어 중국 나름의 성공적인 외국 브랜드 작명의 대표적인 시례 중 하나이다.-https://cafe.naver.com/schoolch/903158-

¹¹⁾ 百事可乐(백사가락)[bǎi shì kě lè, 비이슬크어레, '모든 일이 즐길만 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¹²⁾ 芬达분되[fēn dá, 편대, '芬' 이라는 글자는 '향기, 좋은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达'는 '도달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여서 풀이하면 '좋은 향기를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괴일향 음료로서는 의미를 잘 부여한 것 같다.

¹³⁾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14) &#}x27;음소 문자'는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 단위의 음을 표가하는 문자'를 의미한다. 즉 '표음 문자'나 '음소 문자' 모두 소리나는 대로 문자로 표가하는 문자를 이른다. 다만 '표음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가호로 나타낸 문자를 말하는 반면, '음소 문자'는 그러한 소리 중 '음소' 단위를 적을 수 있는 문자에 해당한다. 즉 상위어와 하위어의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예컨대 한글은 소리의 총위 중 음소의 단위를 가호로 나타내는 문자 체계이므로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에 해당하는데, 일본의 가나는 소리의 총위를 나타내가는 하나 음절의 단위를 가호로 나타내는 문자 체계이므로 '표음 문자'이가는 하나 '음소 문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국립국어원-

¹⁵⁾ 한국어 '젓기락, 숟기락'의 첫음절의 발음은 각각 [전-, 숟-]과 같이 동일한 끝소리 [디로 발음되지만, 그 표기는 각각 'ㅅ'(젓)과 'ㄷ'(숟)으로 달라진다. 부사 '훨씬, 몹시'의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는 모두 된소리 [씨로 발음되는데, 이를 'ㅆ'(씬)과 'ㅆ'(시)으로 다르게 표기한다. 이처럼 동일한 발음을 다르게 표기할 언어학적 근거는 없다. 이 경우 한글은 표음성을 자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를 표기할 때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것보다 더 낮은 표음성이 드러난다. 좀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음은 얼마나 다 양한 발음을 동일한 문자 'a'로 표기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a] (car), [a:] (calm), [æ] (cat), [ei] (able), [ɔ:](all), [ə] (sofa), [i] (palace), [u](road), [eə] (software), [ɛ] (care), [무음 (crystal)

또한 [i:] 소리 하나를 적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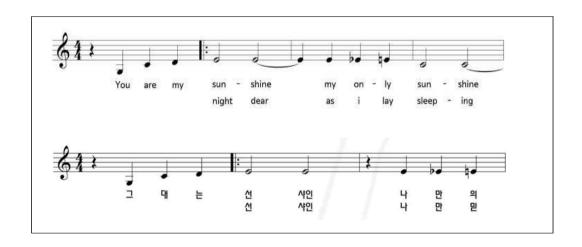
e (region), ee (keep), ea (teach), ei (seize), ie (niece), ey (key), ay (quay)

그러므로 [rait]라고 발음할 때에 이것이 'right, rite, wright' 중 어느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철자를 암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한 한다. -김하수, 연규동, 『문자의 발달』, 2015-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도 읽기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 45개의 철자를 가진 '진폐증' 혹은 '폐진증'의 뜻을 가진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는 발음기호 [njú:mənoultrəmàikrəskàpiksílikouvalkèinoukòunióusis]로 읽으려고 해도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어원¹⁶⁾으로 나누어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으로 쓴다면 좀 낫긴지만 엄연히 이 단어는 '한 단어'이다. 이것을 발음대로 한글로 적으면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쉼 없이 바로 읽을 수 있다.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뉴머너알트러마이크로스코픽실리커발케이노코니오우시스]

이처럼 한국어의 읽기가 용이한 이유는 음소문자이면서 음절(音節)17)단위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음절문자18)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글자를 한 번에 발음을 할 수 있다. 음악에서도 팝송(pop)과 다르게 가요(K-pop)는 '음표(音標)' 하나 하나에 발음을 써 넣을 수 있다.



¹⁶⁾ pneumono(하파)-ultra(초월적)-micro(작음)-scopic(현미경적)-silico(실리코 광물)-volcano(화산)-coniosis(작은 조각) 어원들을 말이 되게 맞추어 보면 '이주 작아서 현미경으로 보이야 보이는, 화산에서 나온 실리코 광물 먼지가 폐에 쌓인 상태'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¹⁷⁾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아침'의 '이'와 '침' 따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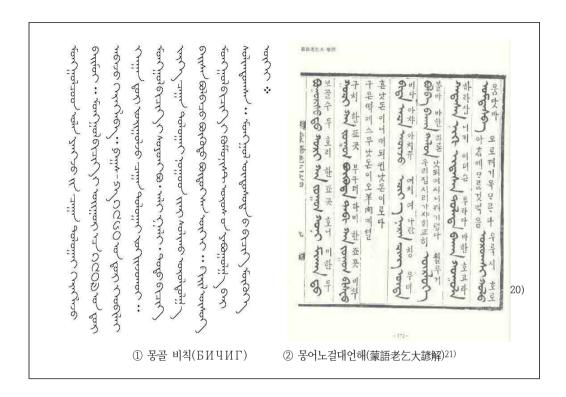
¹⁸⁾ 표음 문자 가운데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일본의 가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쐐기 문자 등이 있다.

(3) 전자문서 작성이 용이한 한글

몽골의 전통 문자는 그 모양이 독특하고 쓰는 방법도 특이하다. 횡서표기(橫書表記, 세로 쓰기)며 그 글자들은 이어서 쓸 수 있어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한다. 십 수년 전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몽골 유학생들 중 이 전통 문자를 쓸 줄 아는 학생이 열에 한 명 꼴이었다. 현재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몽골 전통 문자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40년부터 러시아의 키릴문자(Cyrillic alphabet)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9) 몽골의 아름다운 전통문자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수도 없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도 없다. 중국어의 번체자(繁体字), 간체자(簡體字) 모두 타이핑을 할 수 없고, 중국의 병음(拼音)이라 할지라도 의미의 변별력을 갖는 성조표기는 할 수 없다. 이는 베트남처럼 성조가 있는 세계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글은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음소문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초성을 표기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서 음가(音價)가 없는 초성 'o'을 써 주기 때문이기도하다. 또한 휴대전화의 경우 한글의 제자원리(制字原理)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음은 '가획(加劃)의 원리', 모음은 '천지인(天地人)'으로 알파벳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를 작성할 수 있다.

¹⁹⁾ 몽골이 키릴문지를 차용하게 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글자수가 많아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신문명(러시아)의 도입으로 인한 각종 언론 및 교육과 행정체계에 대한 빠른 입수와 언어상의 통일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후 사실상 러시아의 체제권 언에 속해 러시아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대게 칭기스킨과 관련된 것들로 몽골 비침(БИЧИГ, 글) 사용 금지 외에 수도승 및 사찰의 무력화, 사머니즘 타파 등이 있다. 중국에 속해 있는 내몽골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더불어 아직도 몽골 전통 문자인 몽골 비칙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외몽골의 경우는 전통 문자의 사용이 사회주의 체제 이후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그후,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통 문자에 대한 초·중·고의 교괴목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지만 사실상 몽골 비칙을 이는 건 전 인구의 30~40%쯤이라 한다. 횡서표기라서 기마민족(蘇馬民族)답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쓸 수 있으며, 글자의 표기법을 왼벽히 암기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



3.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사업의 한계

다문화 사회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각국은 난민 및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사이에서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에 도달한 이후 2017년 186만여 명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갈등 없이 껴안기 위해서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민일자리, 사회 안전 등에 관한 선

²⁰⁾ 구은 쩍에 스무 낫 돈이오 羊疹에 설흔 낫 돈이니 대되 쉰 낫 돈이로다 우리 짐 시러가쟈 히 正히 낫 되여시니 져기 덥다 아춤에 만룬 것 먹음으로 져기 목만란다

²¹⁾ 조선사대(1790년) 역학서로 역관(譯官)들의 학습 및 역과사용(譯科試用)으로 긴행된 몽골어 회화책이다. 모두 8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각 면마다 7행으로 각 행에는 왼편에 위구르(Uighur) 몽문자(蒙文字)로 몽골어 문장이 쓰여 있고, 오른편에 한글로 발음이 표시되어 있다. 각 문장 혹은 각 절의 이래에는 국어 역문(譯文)이 붙어 있다. 조선 전기간에 걸쳐 긴행된 각종 언해본역학사(澎湃本譯學書)의 전형적인 체재를 보여주고 있다. '몽어노걸대'의 몽골어는 기본적으로 17~18세기에 정착·보급되어 현재까지 중국의 내몽골(內蒙古)에서 사용되는 몽골어 문어(文語, 혹은 고전몽골어)와 유사하지만, 당시의 구어적 요소(口語的要素) 혹은 현대 몽골어와 동일한 형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민의 불만해소,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신뢰 기반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어교실,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 마련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이주민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 시(市)·군(郡)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큰 도시의경우 구(區)별로 센터를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해서 '새내기 부부 교실'부터 노년을 준비할 '조부모 교육'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 중 한글교육의경우 이민자가 센터로 가서 본인에게 맞는 수준(level)의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한국어 강사가 이민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1:1 수업을 받게도 한다. 최근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한국어수업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는 '결혼이민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민자를 위한 정책 및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을 한국의 거쳐 가는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해 준다면 이들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그 중 기본이 되는 한국어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오직 한국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한다.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

히 이주노동자의 체류비자 변경시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도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대학교나 다문화지원센터, 이주민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법무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강사료'만이다. 거점의 경우 상주하는 직원의 급여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열악하다. 그렇다보니 수업을 개설해 줄 기관이 편리한 시간대에 수업이 개설된다. 가장 많이 개설되는 시간이 평일 낮인데 그 경우 노동자들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또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 수업이 항상 개설되는 게 아니다. 선택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이주민의 레벨에 맞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으면 그 이주민은 지속적인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오직 한국어'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내지 문화체험을 할 수 없다.

3) 이주민(지원)센터

'이주민센터'는 이주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도와주는 곳이다. 물론 불법체류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도와주게 되었다. 인권 침해, 폭언과 폭행, 임금 체불, 산재 등의 고통을 지니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곳이다.

전국의 '이주민센터'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서 시작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운영비를 위해 후원금을 따로 받고 있으며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인건비를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봉사자들의 전문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한 예로, 한국어 교육의 경우 체계적인 '교수-학습평가' 과정이나 '한국어 교수법'을 따지기 전에 시간을 내어 이주민들을 도와 줄 봉사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여주이주민센터'의 경우 한국어 수업은 노동자들의 시간에 맞는 현실적인 수업시간으로 정했다. 보통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 하루만 쉬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낮에 각각 2시간씩 수업을 한다. 그마저도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날이 있으면 출석을 못해 진도가 더 느려지기도 하다. '여주이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준도 제각각인데 출석도 제각각이라서 이들을 한 데 모아놓고 한꺼번에 가르칠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1:1 밀착 수업을 한다. 일주일에 2시

간을 공부하고자 짧게는 왕복 2시간, 길게는 왕복 6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외국인 노동 자들이다. 현재는 더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외국인들을 더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 렀다. 왜 이토록 열악한 환경의 이주민센터가 성황을 이룰까? 바로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결혼이민자에게만 관련되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됐으나,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필요에 의한 저임금·고노동 도구로 활용됐다. 또 유학생은 부족한 학령인구를 채우는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명에 다다르고 있다.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에게 적합한 특화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필요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이주노동자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초기 이주민에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한국어교육 및문화이해 교육 등의 정책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문화로 만난 한국, 한글로 소통하다"에 대한 토론문

서종훈(전 민예총 여주지부장)

대중문화로 만난 한국, 한글로 소통하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 지고 입증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한글도시인 여주에서 한글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감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들의 모국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민간 교류자로서 역할을 해내는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중략-

네팔에서 한국어는 '권력'이다. 올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겠다며 접수증을 끊은 네팔인은 모두 9만 2376명.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한국의 공장, 농장 등에서 고된일이라도 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올해 한국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접수자(3만 5238명)보다 약 2.5배 많다. 꿈마저 포기한 한국의 'N포세대' 청춘들이 공무원증에 목숨 걸 듯가난한 삶에 지친 네팔 청년들은 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 젊음을 바친다. 하지만 이들은한국어만 배울 뿐 정작 일하다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대처법 등은 잘 모른 채 한국에 온다고 말한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한국어 학원에서네팔 청년 10명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은 '이주노동의 나라'인 네팔에서 꽤 특별한 위치에 있다.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네팔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2008년 3만 1530명에서 올해 9만 2376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주노동지역 중 한국을 선호하는 네팔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네팔 주간지인 '네팔리 타임스'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네 가정 중 한 가정 꼴로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기회의 땅'으로 알려지다 보니 카트만두에는 한국어 학원이 성업 중이다. 카트만두의

한국 고용허가센터(EPS)에 따르면 이 도시의 한국어 학원은 816곳이나 된다. 가장 큰 한국어 학원 '신화'의 수강생은 1000여명이다.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은 우리 취업준비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서 한국어 학원을 하는 슈만 타파(28)원장은 "수업은 오전 7~10시나 오후 4~5시쯤 진행한다"면서 "수강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이른 아침에 공부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1년에 1만 7000루피(약 18만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감당하려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없다. 한국어를 가르치는바지르 부다토키(41)는 "제조업 분야로 이주노동을 가려면 1~2문제, 농업 분야는 3문제넘게 틀리면 탈락한다"면서 "제조업이 돈을 더 주기에 커트라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 2019.09.25. 서울신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인식전환

위 언론사의 기사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한국에 오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면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08년부터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금년 7월에 네팔로 돌아간 테즈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팔에서 배워온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못 했다.네팔에서 네팔어 교사를 하던 그가 나름대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지만 막상 노동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교과서의 언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다시 한국어를 익히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네팔에서 가르치는 한국어교과서에는 "00씨 이 물건을 저리로 가지고 가세요"라고 배웠지만 한국의 노동현장에서는 "야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뿐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도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반말을 하기 일쑤다. 여주시는 여주중앙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즈음 장날 뿐 아니라 주말에 중앙로에 나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이들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목은 생필품만이 아니라 공산품까지 다양하게 소비한다. 이제 이들은 여주시장에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장의 한상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농담아닌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게 된 것에는 여주이주민지원센타나 여주다문화센타 등 여러 단체들의 지원 활동의 도움으로 빠르게 한국생활에

적응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한다. 특히 지원 단체들의 한국어 교육은 가장 큰 힘이 되었으리라. 한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이렇듯 한국어 교육에 노력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에게 보다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줌으로써 그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도 우리 문화를 알고 익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한 그들을 이방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서로가 함께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민간 문화 사절단으로

네팔로 돌아갈 무렵에 테즈씨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만큼 돈도 벌어 수도 카트만두에 새로 집을 짓고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준비 한듯하다. 고향네팔에 가서 아무일하지 않고 잠시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는 한국과 관련된 일에 봉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한국에서 생활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생활을 통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됨은 물론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이어주는 민간 사절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강병인(한글 글씨연구가)

본 자료는 필자의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과 석사 논문 『갤리그라피로 표현된 한글글꼴의 의미적 상형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를 추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들어가는 말

인간은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림과 문자를 만들어 의미를 전달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문자를 만들기 이전, 소리나 몸짓으로 전달하던 정보는 기록되지 못하고 곧장 증발해 버렸다. 그러나 인간은 나무와 돌, 쇠, 종이 등의도구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고정함으로써 정보의 증발을 막을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 사용했다. 바로 문자이다.

문자는 그 기능이나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뜻을 표기하는 표의문자(表意文字)와 음형의 실체를 표기하는 표음문자(表音文字)로 분류할 수 있다. 음을 표기하는 문자로는 로마자, 한글, 러시아문자, 아랍문자 등이고, 뜻을 표기하는 문자로는 이집트문자, 한자가있다. 한자는 인체나 동식물의 형상, 즉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바탕으로 만든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형성을 내포한다. 반면 한글은 표음문자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표의성(表意性)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이 표음문자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는 형태로 상형화'라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의 표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다름, 평등, 사랑, 쉬움, 편하게]의 주제어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 원리

1443년 조선 4대 국왕 세종에 의해 창제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우리 민족의 역사 상 매우 중요한 문화적인 사건이자 앎으로 나아가는 지적 혁명이다. 『훈민정음해례본』은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서 그 창제 동기와 사용법을 밝혀놓은 매뉴얼이며, 세계 문자역사에 있어서도 그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異]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一般)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通]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이를 딱[憫하게 여기고 새로[創]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 [剔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便]토록 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1)

『훈민정음해례본』서문에서 밝혀놓은 한글 창제의 배경과 과정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21세기의 훈민정음 디자인적 재해석의

첫째, 다름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 다름[異]에도 한자를 쓰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는

^{1) 『}훈민정음』 서문.

^{2) 2013} 한국디자인진흥원 『K-design』 세미나 발표자료, 강병인.

주체적인 생각을 먼저 말하고 있다. 중국 외에 일본마저도 자국의 문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자각'과 더불어 '다름'에서 출발한 것은 독창적인 사고와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매우 디자인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둘째, 평등

한자를 모르는 일반(一般) 백성들은 읽고 쓸 수 없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핍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보았다. 당시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어서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모르는 일반백성들을 위해 새롭게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은 군주국가인 조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나 세종은 한글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만백성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평등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셋째. 사랑

문자를 몰라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들을 사랑[憫하는 세종의 지극한 마음의 표출이다. 현대 디자인 전략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능만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사랑'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고 만다.

넷째, 쉬움

문자를 전혀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배우기 쉽[剔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쉬움의 원리에는 애민정신과 과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한글의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편하게

새로운 문자를 읽혀 양반이든 평민이든 모든 백성들이 편[便]하게 쓰라는 보편화와 실용정신이다. 이렇게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밝혀놓은 한글창제의 의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인 정보 전달과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조선만의 문화중흥을 꾀하고 있으 며, 학문진흥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만백성의 지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풍 요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쌓은 것이다. 또한 한글은 새로 만들어진 문자이 기 때문에 압축된 형태의 원형으로 표기하여 한글 꼴의 올바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전환이 무궁하기에 후대가 스스로 다양한 꼴, 즉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키우며 발전해 가기를 원했다.

천인지(天人地),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製字)철학

훈민정음 제자의 철학적 배경은 당시 성리학(性理學) 이론인 "삼극지의(三極之義)와 이기지묘(二氣之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음 제자의 바탕이 되는 삼극은 천, 지, 인 삼재(三才)를 말하고, 이기(二氣)는 음과 양을 말한다. 이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이 생성되고, 음양이 변하고 합하여 자음을 만드는 오행(五行)이 생기는 이치"3)로 한글을 만들었다. 이모두가 동양의 우주관이자 자연관이다.

모음 제자의 바탕이 되는 하늘과 땅, 사람은 서 로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 될 수 없지만 정음의 제



모음의 음양(陰陽), 순환(循環)의 시스템

자원리에서는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고 또 모아지는 합자의 원리로 문자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한자와 다른 한글만의 체계 즉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세상에 없는 문자디자인의 원리이다. 더불어 음양의 변화, 즉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의원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를 적는 방법'은 한글이 표음문자의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하고 있다.

³⁾ 전정례김형주, 『훈민정음과 문자론』 p.105, 역락, 2002.

"한글은 제자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내는 소리와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그 이(理)를 다한 개념적이고 합리적인 디자 인 결과물이었다."⁴⁾

2) 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예술성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

『훈민정음해례본』은 서문과 예의가 있는 본문과 제자해, 정인지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서문에 나와 있는 한글 제자원리, 즉 디자인 원리를 살펴보았고, 제자해는 다시 초성해, 중성해, 장성해, 합자해, 용례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글제자원리의 중심을 이루는 중성해를 살펴보고 초성해와 종성해, 합자해를 분석함으로써 한글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소리문자이며 어떻게 과학적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글이 표의성을 가진 문자인지를 살펴본다. 이때 정형화된 활자로는 한글 제자원리의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필자의 글씨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음28자, 각상기형이제지(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정음 스물여덟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5)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制字解)에서는 한글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자학의 기본이 되는 육서(六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상형(象形)'을 한글 제자원리로 삼고 이를 모음자 제자와 자음자 제자의 바탕으로 삼았다."6) 자음자는 특히 조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음자 역시 철학적 이치에 따라 제자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에 대한 상형성을 밝힌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삼성(초·중종 三聲)에 나아가 깊은 이치를 살피면 스스로 강유(剛柔)와 음양이 있

⁴⁾ 안상수한재준, 『한글디자인』 p.27, 안그라픽스, 1999.

^{5) 『}훈민정음해례본』制字解.

⁶⁾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3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으니 중성은 곧 하늘(天)의 용(用)이라 음양으로 나뉘고 초성은 곧 땅(地)의 공(功)이라 강유가 드러나네. 중성이 부르고 초성이 화답함은 하늘(天)이 땅(地)보다 앞서서 이치가 스스로 그러하네. 화답한 그것(즉 초성)이 처음 되고 또 나중 되니 만물이 생겨나 모두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네.

음은 변해 양이 되고 양은 변해 음이 되어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여 서로 뿌리가 되네. 초성은 또다시 발생의 뜻이 있어서 양의 동(動)이 되므로 하늘을 주관하고 종성은 땅(地)에 비기어 음의 정(靜)이니 자음(字音)은 여기서 그치어 정해지는 것이네. 운을 이루는 요점은 중성에 있으니 사람(人)이 능히 천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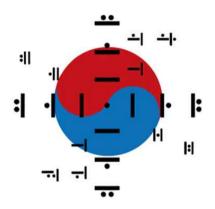
위의 내용은 강신항 선생이 번역한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중 일부로 초성, 중성, 종성이 만들어진 이치를 음양오행과 더불어 순환의 원리 즉,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모음의 원리

음양과 순환의 원리로 드러나는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중성은 자운(字韻)한 가운데에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을 이룬다."⁸⁾ 중성해 첫 머리 글이다. 중성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으로 천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 에 있으면서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 사람을 나타낸 •, _,] 세 자를 기본으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게 하였다. 태극에서 음과 양은 머무르지 않고 회전하며



〈그림 1〉 태극, 음양의 순환의 원리

순환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가 자연스레 녹아들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과 소리가 드러난다. 특히 •는 중심을 이루며 모든 소리를 관장한다.

⁷⁾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5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⁸⁾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p.15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나는 들어오는 소리라 탁하고 음이 되며 나는 나가는 소리라 밝고 양이 되며 그는 올라가는 소리가 밝고 양이 되며 나는 내려가는 소리라 탁하고 음이 된다.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 가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 지구가 자전 하는 것처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 는 이치로 소리를 적는데, '엉엉'이 '앙앙' 이 되고 '꼬불꼬불'이 '꾸불꾸불'이 된다〈그 림 2〉. 이 순환의 원리로 희로애락, 생과 사, 닭이 홰치는 소리, 사람이 우는 소리



〈그림 2〉 모음의 순환

등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게 하였다. 단순히 소리를 적는 기능을 넘어 말이 가진 뜻을 표현함으로써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자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한글의 독창적인 조형성과 더불어 예술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그림 3〉은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글씨로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모음 •에 해당하는 가로획 길이를 짧게 하거나 길게 늘여줌으로써 위 글씨는 좁은 마음을 아래는 보다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 모음 가로획 길이의 변화

〈그림 4〉는 '솟다'라는 글씨를 통해 기운 이 올라가고 뻗어나가는 한글의 표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원리처럼 '솟다'의 모음 ㅗ 세로획의 길이만을 늘임으로써 1차적으로 '올라가는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여 ㅗ를 90도 돌려서 '다'의 모음 가로획을 더 길게 함으로써 '멈춰있는 기운이 아니라뻗어 나아가는 기운'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b〉가 솟아오르고 뻗어나가는 '솟다'의뜻이 보다 잘 드러난다.



그림 5〉는 소리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5-a〉의 '덩더쿵'은 짧은 소리를, 〈그림 5-b〉의 '덩더'에서는 모음 ㅓ의 가로획 길이를 늘여 가로로 늘어나는 소리를 표현하였고, '쿵'에서는 세로로 늘어나는 소리를 모음 구의 세로획을 길게 늘여 표현하였다. 〈그림 5-c〉는 소리의 방향이 잘못된 예이다. '덩더'는 수평으로 나가는 소리인데모음 ㅓ의 세로획이 너무 길어서 소리의 방향이 바르지 않다.



〈그림 6-b〉는 흥이 날 때 표현하는 '얼씨구나'를 소리의 길이와 들어오고 나가고의 흥을 표현하였다. 〈그림 6-a〉는 붓글씨는 맞지만 소리의 리듬, 운율이나 흥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6-a〉

〈그림 6-b〉

위의 참고 그림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활자와 서예의 표현의 차이이다. 활자는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거나 저장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형화 되어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소리의 크기나 길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넓이, 희로애락 등을 보이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서예나 손글씨 등은 앞서 언급한 문자의 표의성을 적극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4) 자음의 원리

소리의 형태화

자음은 기본자를 각각 그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 을 상형하였기에 이기불이理旣不二. 즉 '소리와 문 자가 다르지 않다'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소리 안에는 자연과 인간의 삼라만상이 두루 들어있다. 이 소리를 보이게 한 것이 한글이다. 일본의 언어 학자인 노마히데키(野間秀樹)가 그의 책 『한글의 탄생』에서 "정음은 '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발생론적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이는 '형태'를 찾고 보이는 형태로 '상형'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한자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상 형화 했지만 한글은 소리의 발화지점인 발음기관 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음 위치는 같지만 조음 방법이 다른 음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기본 자에 획을 더한 것이다. 즉 상형의 원리로 발음 위치를, 가획의 원리로 발음 방법을 나타내고 있 다."9)



이렇게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은 〈그림 7〉10)의 기본 초성 평면도에서 보듯이 미술의 기초 도형인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사

⁹⁾ 전정례김형주, 『훈민정음과 문자론』 p.99, 역락, 2002.

용되었다. 자연이 내는 소리나 사람의 소리, 동물의 소리 역시 발음기관을 본 떠 만든 자음에서 오롯이 살아난다. '칼'이라는 글자에서는 한글의 표의성이 더욱 쉽게 설명된다.

〈그림 8〉 '카아알~'하고 길게 소리 내어 보면 초성과 중성, 종성이 분리되면서 칼의 쓰임이 드러난다. 초성 ㅋ은 음의 형태화로 소리에서 날카로운 칼의 형태가 보이고, 중성 ㅏ는 칼을 쓰는 사람, 종성 ㄹ은 소리나 형태에서 칼을 휘두를 때생기는 역동성이 자연스럽게 소리 안에서 먼저 보인다. 이때 활자로 표기된 '칼'은 소쉬르의 기표와기의에 의하면 기표가 되는 것이고, 붓글씨로 표



〈그림 8〉 '칼' 자의 역동성

현된 '칼'은 의미작용이 일어나면서 기의가 된다. 이처럼 소리의 시각화, 소리의 상형 화로 만들어진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초성 (자음)	٦, ٦, ٥		ㅁ, ㅂ, ㅍ		o, o , ō
오행	木	火	土	金	水
사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오음	각	치	궁	상	우
오방	동	남	중앙	서	북

(표 2)발음기관과 오행 그리고 자음과의 관계11)

¹⁰⁾ 이정호, 기본 초성 평면도,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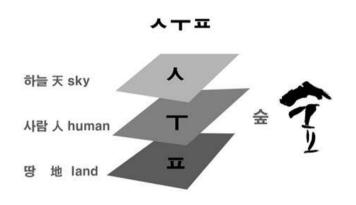
¹¹⁾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정인지서문 p.9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5) 합자의 원리

"초중종 세 소리가 어울려서 비로소 글자가 되고 소리가 난다." 합자해의 첫 글이다. 한글은 이렇게 합자(合字)의 원리로 만든 입체적인 문자이다. 초성과 중성, 종성이 만나 글자를 이루며, 먼저 닿자와 홀자가 만나고 다시 닿자와 홀자, 받침자가 만나 소리를 내며 문자로서 의미가 생긴다.

한글은 말의 소리를 각각 하나의 글자로, 즉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나타낸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적기 때문에 음절을 분리해 낼 수 없는 일본의 가나 문자나 표의문자인 중국의 한자와 비교했을 때 낱낱의 소리를 분석하여 분리해 낼 수 있다. 한글은 모아쓰기를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음절 방식의 표기체계

를 가지고 있다. 자음과 모음의 음소를 음절 단위로 묶어다시 한 글자로 만들어 쓴다. 바로 음절 3분법이다. '숲'이라는 말은 'ㅅㅜㅍ'이라 쓰지 않고 '숲'처럼 모아 써야 만 비로소 소리가 나고 문자가 되며그 의미가 생겨난다. 모아씀으로써 '숲'이라는 말의 시각화뿐만 아니라 숲이 가지고 있는



〈그림 9〉 참고자료_정병규, 한글의 이미지성과 상형성

의미와 형태가 생성된다. 이러한 입체적인 체계는 한자나 알파벳, 일본어 히라가나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체계로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 이기도 하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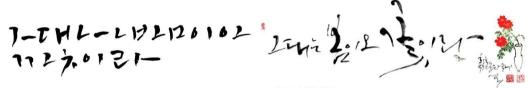
북디자이너 정병규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는 표음문자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상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알파벳의 시각적 구조가 평면적, 2차원적이라면 한글은 입체적, 3차원적이다. 이러한 입체성은 한자의 상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한글의 상형성, 한글의 이미지성도 이 입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2)

이렇게 처음부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음절 3분법의 법칙은 한글만의 독창

¹²⁾ 안상수 외, 『리라 프로젝트 01_우리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p.148, 안그라픽스, 2006.

성이자 뛰어난 표현력이다. 이러한 입체성을 통해 형태를 달리하고 표음문자이면서도 표의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a〉처럼 모아쓰지 않고 풀어쓰면 한글은 이렇게 일반적인 소리문자, 즉 알파벳 같은 표음문자가 되었을 것이며, 입체성을 찾아 볼 수 없는 2차원적인 글씨가 되고 만다. 그렇지만 〈그림 10-b〉에서 보듯이 모아씀으로써 한글의 입체성과 상형성, 표의성이 드러나며, 서예가 요구하는 기운생동의 예술적 가치가 극대화 된다. 이렇게 한글은 초성중성종성을 해체하고 다시 모을 수 있는 입체적인 문자이다. 모아 쓸 때에도 초성과 중성, 종성 사이의 공간, 틈을 잘 부려 말이 가진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한글 제자의 의의를 보다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그대는 봄이오 꽃이라

〈그림 10-a〉 풀어쓰기 그대는 봄이오 꽃이라

〈그림 10-b〉 모아쓰기

6) 순환의 원리가 만들어내는 한글의 예술성

훈민정음에는 또 다음과 같이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 즉 순환의 원리로 한글을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일원(一元)의 기운이 두루 흘러 막히지 아니하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순환하여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貞)이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니, 초성이 다시 끝이 되고, 종성이 다시 처음이 되는 것도 다 이 뜻이다.13)

¹³⁾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정인지서문 p.14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4. 분고

초성이 종성되고 종성은 초성 된다는 말은 바로 봄이 되면 가지에 꽃이 피고 여름 되면 푸름을 다하다 가을,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니 그 잎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겨

우내 영양분으로 있다 가 다시 봄이 되면 꽃 이 피는 자연의 순환 워리(원형이정, 元亨利

꽃꽃꽃봄봄봄봄

〈그림 11〉 '꽃' '봄' 활자

貞)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1〉에서처럼 활자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서예나 멋글씨, 캘리그라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꽃'자의 종성 ㅊ은 뿌리가 되고, 모음 ㅗ는 가지가 되면서 초성 ㄲ은 가지위에 핀 꽃 잎이 된다. 이 꽃잎이 가을이 되면 땅으로 떨어지고 겨우내 영양분을 머금었다가 봄이되면 다시 피어난다.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초성이 되는 원리가 자연스레 보이게된다〈그림 12〉. 같은 원리로 '봄'자의 종성 ㅁ은 땅에서 싹이 나고 모음 ㅗ는 가지가되며 초성 ㅂ은 가지위에 맺힌 꽃봉오리가 된다〈그림 13〉. 뿌리와 가지, 꽃잎을 보이게 함으로써 활자와는 다르게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글의 제자원리를 서예나 멋글씨로 담아내면 그것은 곧 한글의 표의성과 상형성, 예술성이 나타난다.



〈그림 12〉 꽃 한글순환의 원리



〈그림 13〉봄_한글순환의 원리



〈그림 14〉소리의 들어오고 나감, 내려가고 올라감, 음악적 리듬감, 기운생동의 흥을 글씨에 드러내었다. 강병인, 2019.

7) 한글 디자인 및 예술작품 사례

아래는 한글 디자인, 회화, 서예, 조각, 패션, 도예 등 각각의 분야에서 한글의 예술 성을 높이고 있는 주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강익중(화가)_'내가 아는 것'



전성근(도예가)_'한글 항아리' 외





한재준(시각디자이너)_이기불이



4. 분과

안상수(시각디자이너)_'웃음꽃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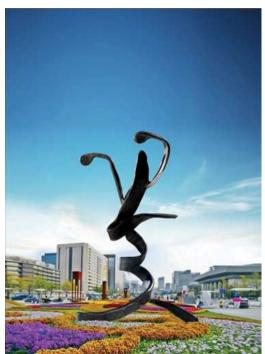
강병인(글씨예술가)_한글세움 프로젝트 '꽃봄', 이근세 조각가와 협업















서울시 강동구 SK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꽃 조형물, 2019.

4. 분고

이상봉(패션디자이너)_'한글 옷' 외













마무리

쉽고 과학적인 원리속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 가치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에서 나타난 한글창제의 기본 정신을 다름[異], 평등[一般], 소통[通], 사랑[憫], 쉬움[易], 새롭게[創], 편[便]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글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용어로 본다면 디자인된 것이다.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보다 몇 백 년 앞서 세종대왕의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진 지적결과물이다.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들이 다 적용되어 15세기 만들어진 문자이지만 21세기 디자인적인 해석으로도 전혀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는 문자이다. 사용성과 실용성에 있어서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오히려 그 쓰임이 날로 새로워 600년 전

에 쓴 정인지 서문에 적혀있는 '스물여덟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다'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

음양오행과 순환의 원리로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

음양오행이라는 동양만의 우주관을 한글제자의 바탕으로 삼고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 즉 순환의 원리로 세상의 모든 말을 적게 하였다. 또한 초성은 하늘이오, 중성은 사람, 종성은 땅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합하여 소리가 나게 하고 문자가 되게 하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이 지극한 문자이다. 이는 한자나 알파벳에는 없는 순환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한 한글만의 독창적인 제자원리이다. 한자는 해를 보고 해 일 日자를 만들고, 달을 보고 달 월月을 만들고, 다시 일日과 월月을 합하여 밝을 명明을 만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늘과 땅,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음과 양은 조화를 위해 늘 순환한다.

나는 나가 되고,

너는 들어오는 소리와 기운을

나는 나가는 소리와 기운을

ㅜ는 내려가는 소리와 그 기운을

글씨로 옮기면 표의성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사실 모아쓰기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모음의 운영 원리 속에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은 이미 정의되어 있다. 그것을 글씨로 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다. 한글은 표음문자로만 가두어 둘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 진 것이다.

앞으로 한글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디자인과 서예에 적용함으로써 기록과 전달이라는 문자 본래의 기능을 넘어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가치를 보다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나타난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에 대한 토론문

정복동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동양미학전공)

강병인 선생은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철학적 원리가 표음문자뿐만 아니라 표의성(表意性)이 내재되어 있음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논하였습니다.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는 한글창제의 기본 정신이 나타나 있는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다름', '평등', '사랑', '쉬움', '편함' 5개의 주제어를 가지고 디자인의 기본 정신으로 환치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과 순환의 원리에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이 내포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1세기 한글 디자인계를 이끌어가는 강병인선생이 한글디자인의 조형요소와 디자인 정신을 문자 창제의 시원에서 찾고자 한 것은 한글 디자인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 은 디자인계의 학문적 토대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이에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의와 제언을 하여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질의 1〉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은 '디자인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였고, 〈표1〉에 '21세기의 훈민정음 디자인적 재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제어는 다름(창조정신 독창성), 평등(민주주의), 사랑(디자인 기본정신), 쉬움(애민, 과학+예술), 편함(실용정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표1〉에서 '평등'이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하면 '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정신이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표1〉에 제시한 것 외에 디자인만의 특수한 예술정신이 있다면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천인지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 철학'에서 '음양의 변화,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의 원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를 적는 방법은 한글이 표음문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표의문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의성(表意性)'이 동아시아미학에서 중시하는 작가의 뜻을 표현하는 '사의성(寫意性)'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3)모음의 원리; 음양과 순환의 원리로 드러나는 한글의 표의성과 예술성에서 '태극에서 음과 양은 머무르지 않고 회전하며 순환한다.…'고 하였는데 〈그림1〉과 〈그림3〉의 모음도는 태극 음양오행의 순환원리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의 중성과 초성은 태극방위가 적용되고 음양오행의 相生관계로 배열됩니다. 예를 들면 오행의 木生火(동쪽, 봄 아음, ㅏ/ㅕ), 火生土(남쪽, 여름, 설음, ㅜ/ㅠ), 土生 金(중앙, 끝여름, 순음, ㆍ/ㅡ), 金生水(서쪽, 가을, 치음, ㅓ/ㅑ), 水生木(북쪽, 겨울, 후음, ㅗ/ㅠ)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원리로 초성과 중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방위에 따라 모음 ㅏ와 ㅕ는 동쪽, ㅜ와 ㅠ는 남쪽, ㆍ과 ㅡ는 중앙, ㅓ와 ㅑ는 서쪽, ㅗ와 ㅠ는 북쪽에 배열하여 초출자와 재출자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열되는데 〈그림1〉과 〈그림3〉의 배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언의 글

1. 문장의 형식

- (1) 문장의 구성상 '장 절 항 목'의 구분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I IIIIIV(1, 2, 3, 4) 로 한다면 I 장 : 들어가는 말, II 장 :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등의 형식이 갖추어져야 논문의 체계에 좋을듯합니다.
 - (2) 참고문헌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 (3) 주석에서 '강신항, 『훈민정음연구』'는 『훈민정음해례본』내용의 원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성은 <u>자운(字韻)한 가운데에서</u>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을 이룬다."→

"중성은 자운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을 아울러서 음(음절)을 이룬다."

『訓民正音解例本』「中聲解」,"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

- (4) 오탈자
- 세종은 우리말이 중국 다름 → 중국 말과 다름
- 용례해 → 용자례(用字例)

2. 문장의 내용

- (1) '2)제자원리로 살펴보는 한글의 조형적 특징과 예술성'에서 '정형화된 활자로는 한글 제자원리의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필자의 글씨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2)장은 3)~6)장까지의 서론이 아니므로 '들어가는 말'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밝혀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2) '1)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제자원리- '천인지, 세상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진 한글의 제자철학' 문장에서 '한글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문자 고유의 기능을 뛰어넘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소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인용문을 제시하고 문장을 마쳤습니다. 인용문 제시는 그 인용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보다 확고히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자의 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3) '합자의 원리' <u>초성과 중성</u>, <u>종성</u>이 만나 글자를 이루며, 먼저 <u>당자와 홀자가 만</u> 나고 다시 당자와 홀자, 받침자가 만나 소리를 내며 문자로서 의미가 생긴다.
 - → 용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상 한글의 디자인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보다 다양하게 연구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분고

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

김유영(세종한글사랑 회장)

세종한글사랑회는 그 동안 여주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전하고자 세종대왕한글 전국휘호대회 및 한글날 기념 서예전시 등의 크고 작은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나름대로 한글 보급 선양에 이바지하며 앞장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57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마련된 2019 한글날 학술대회는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될 뜻깊고 값진 소중한 자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세종한글사랑회가 이 곳 여주를 중심으로 한글서예활동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사례와 한글서예를 중심으로 발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통해서 앞으로 온 국민들의 호응과 협조는 물론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등을함께 모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해 본다.

1. 과학적 문명과 정신적인 문화와 한글의 민족적 자신감

한글과 한글서예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느낀 것이 있다.

원래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한글이라고 불리어지는 한국어의 문자 발명의 이면에는 언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풍부한 문화적 힘과 민족적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위대한 문명에는 문화적 창의성을 육성했거나 지적 생활을 부흥시켰거나 물질적 문명과 정신적인 문화를 장려한 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러시아에는 피터대제, 프랑스에는 루이 14세가 있다면 한국에는 모든 문명을 밝혀서 천지를 조화롭게 한 세종대왕이 있다.

세종대왕은 역사상 대왕이라 알려진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추앙받는 것은 무자비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서 세종의 덕이 한국을 밝혀준 인본주의적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한글처럼 그 가 베푼 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2. 한글이 베푼 일상생활의 문명적 풍요

한글처럼 모든 분야에 걸친 세종의 과학적 문명을 살펴보면서 세종을 그리는 마음이 우표와 지폐에서 보듯이 거리를 다니다 볼 수 있는 많은 주요거리, 학교, 연구소, 문화 회관, 회사, 심지어 조그만 상점까지도 세종이란 이름이 붙어진 간판을 볼 수 있다.

그것으로 볼 때 세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아가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존경받는 인간 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원권지폐(세종대왕)



여주시 하동 세종여주병원



여주시 교동 세종초등학교

그러나 때로는 세종고물상, 세종다방 등을 볼 때는 너무 무분별함에 안타까움이 절로 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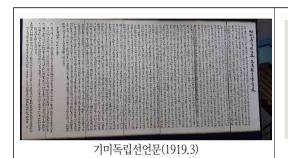
3.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원동력, 한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남긴 수많은 업적들 중 특히 한글의 정화된 우아함과 과학적 일관성 속에서 우리 민족 모두는 인간세종을 존경하며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글 창제가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원동력도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문자가 있어서 가능하며 길이 남을 우리민족의 자긍심입니다.

"우리나라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의 감동적인 서문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쓰기를 바라는 인자한 마음이 언제나 생각하면 감사한 믿음으로 남는다.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라져 가는 고어의 아름다움, 나눔옛한글을 나눕니다.

네이버 공개용 폰트 나눔 표어(2014)

4. 한글의 탄생과 각 시대별 서체의 변천

인간이 의사 표현수단으로 발명된 문자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변천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글창제 이후 지금까지 한글이 변천해온 과정은 우리민족 수난사만큼 험난했으며 한자 위주의 사대문화에 짓눌려 한글 본연의 글꼴을 상실한 채 한자에 어울리도록 사용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서는 아예 한글 사용마저 말살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며 문자의 실용적 기능은 역사를 담아내고 글씨에 미감을 더하면서 우리 민족 정서에 맞추어 한글 서예술도 조화롭게 진행되었다.

한글의 탄생에서 각 서체가 변천하여 발달하여가는 문자의 유연성으로 다양한 아름 다움을 보여줌으로써 글씨가 갖는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매년 시대별 서체로 전시하는 한글 서예술로 감동과 품격을 나누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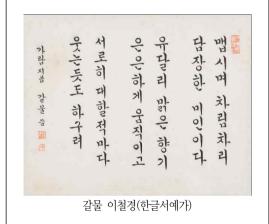




월인천강지곡(1449)



서사상궁 서기이씨 대필





5. 문화란 인간의 영혼을 담는 질그릇

문화란 인간의 영혼을 담는 질그릇 같다고 생각한다. 질그릇이란 계속 숨 쉬는 그릇 이기 때문이다. 흙을 갈아엎음으로 땅에 힘을 주듯이 문화는 끊임없이 소통과 공유로 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릇 모양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서체도 시대와 함 께 변화하여 다양성 있게 발전을 거듭하며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로 이어갔다.



유약을 바르지 않아 숨 쉬는 질그릇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 건너가 정착되는 현상을 문화 전파라고 한다. 이렇듯 문화의 강물은 오롯이 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적시며 다양한모습으로 흘러간다.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으로 한류라는 한국문화의 물결이 흐를 때도 한글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한다.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가며 잠시 심신을 고요히 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시간도 서예의 즐거움이지만 넓은 장소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서예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함께 즐기는 서예체험을 다문화가족 등 많은 관람객들과 구경이 아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는 시간인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손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을 해 주고 싶었다. 직접 해 보고 또는 처음으로 해 보는 붓글씨이지만 서로 써 보고자 했다.

인간의 표현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하얀 종이에 까만 먹물 자국만으로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붓을 잡는 순간 시간을 잃고 길을 놓치고 모두의 가슴에 번지는 희열의 순간을 보았다. 성공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붓을 잡고 종이에 획을 긋는 순간 참여자 모두 몰입하고 있었다. 청춘 남녀든 노인, 어린아이든 길게 펼쳐진 종이 위에 내키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더러는 쓰고 더러는 그린다. 인간이 갖고 있는 숨길 수 없는 표현 본능이 대한민국, 또는 사랑해요 등을 우리의 한글로 그것도 붓으로 써 내려가면 붓이 지나간 자리엔 먹꽃 예술이 피어난다. 먹꽃은 묵향이되어 문화의 날개를 달고 산을 넘고 대양을 넘어 주변을 적시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2015년 영릉 한글 어울림



2016년 영릉 아름다운한글 써주기

6.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동경과 지향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글씨와 글쓰기를 숭상하였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표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린 아이가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다가 먹고 그 다음 손에 무언가를 쥐고는 마구 긋는 것은 긋거나 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간 본능의 자취라 할 수 있다.

옛 것을 본받으면서 변동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면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서 예술은 수신이자 학문이며 동양 최고의 오래된 예술이다.

붓글씨는 한국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내려온 우리의 중심문화이다.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예술로서 단순히 기록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회사들의 광고를 보아도 서예를 본받으려고 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선과점의 예술인 서예가 지닌 품격 높은 예술성이 고급제품의 광고나 기업이념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서예는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나 품격 높은 상품의 내용과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담을 수 있는 훌륭한 표현 수단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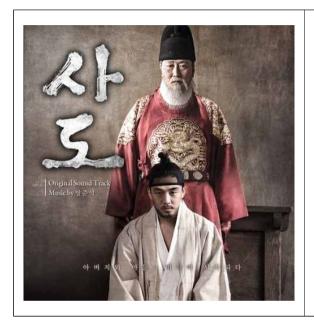
컴퓨터로 글을 쓰는 작업이 편리하게 일반화된 요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듯 시각적 인 변화나 조형미를 더욱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 문화 보존의 희망이다.

이런 기대와 요구에 부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전통에 바탕을 둔 서체를 활용하여 전통을 지키며 새로움을 창안하는 법고청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TV 에서 젊은 그래픽디자이너들이 책의 표지나 영화의 광고포스터를 제작하

면서 제목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서체 개발에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젊은 디자이너는 천으로 싼 나뭇가지들을 먹을 묻혀 듬성듬성 호흡을 맞추며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들의 바탕에는 전통 서예술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이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동경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2015년 먹빛누리전 세종한글사랑 행사 체험 작품

7. 세종대왕 영릉이 자리한 여주는 천혜의 고장

한강은 서울을 대한민국의 중심지이자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하는 원천이 되었듯이 여주는 남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이 자리 잡 고 있어 한글의 도시 여주라는 면모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곳이다.

세종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위대한 성군일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 오직 백성을 사랑한 어진 왕이었기때문이다.

전철이 개통되고 법정공휴일로 재 지정된 한글날행사에 여주를 찾아오는 많은 관람 객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한글의 고장 여주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내국민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의 체계적인 보급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 세종애민정신의 숭고한뜻을 이어가며 한글로 이어가는 문명, 문화, 예술로 여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여주시전경



세계문화유산 세종대왕 영릉

8. 한글을 사랑한 마음으로 시작한 전국대회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손으로 글씨 쓰는 행위가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세계적으로 인정한 문화인 한글을 서예술로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행사, 세종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역량 있는 서예인 및 참관인이 찾아오는 행사로 시작해 어느덧 10주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각지에서 한글만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행사로 알려져 있어 먼 지역 참가자들은 행사전날 여주에서 숙박과 관광을 하는 등 축제 같은 전국행사를 통하여 영릉이 있는 여주의 방문을 높이는 세종대왕전국한글휘호대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자세

지금 세계는 동아시아권 문자권 고유의 예술인 문자서예를 경이와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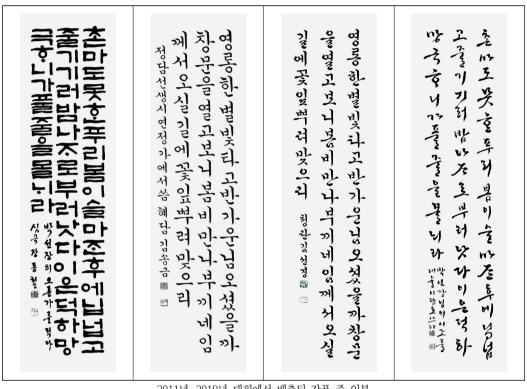
특히 한글은 만든 사람과 제작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로 문명 퇴치에 노력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최고의 상을 세종왕상으로 명명할 정도의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한글 휘호대회에서 배출되어 보관하고 있는 전국 각 지역 서예인들의 새로운 작품으로 여주를 알리며 전국 순회 전시 요청을 받은 바, 더 많은 순회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신출되는 수상자들의 우수작품이나 권위 있는 작가들이 보내온 찬조작품 등 귀중한 자료들이 마땅히 전시할 곳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별 서체를 전시하면서 우리는 문자와 발전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따라서 세종한글사랑, 문자예술전시관을 준비하여 세종의 얼과 뜻이 깃든 여주를 찾아준 전국 각 지역 작가들의 한글 서예술 전시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여러 작품을 통하여 고전 속에 현대를 융합시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위축되지 않도록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자세로 세종의 숨결이 깃든 영릉이 있

는 여주방문을 통하여 각 지역인들이 예술관계를 교류할 수 있는 문화교류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역사가 생긴 이래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은 국가의 역사를 지키 고 그 뜻과 의지를 전승할 수 있었던 것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2019년 대회에서 배출된 작품 중 일부

10.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세종한글사랑

온 국민이 한글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세종한글사랑 휘호대회나 한글 문자 전시는 세종대왕 영릉이 있는 여주이기에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며 세종한글사랑이라는 주제가 있고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물도 있어야 하겠지 만 관심 있게 보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 대중도 있어야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문화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매년

한글 서예술 교육과 전시로 소통하며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생 각을 통하여 문화적 전통은 풍부해지며 각 분야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귀중한 자 료들이 영구 보존 전시되어 지속성을 이어가야 한다.







2016여주시평생학습축제

2018세종대왕문화제

11.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한 우리의 중심 전통서예문화

서예는 동양최고로 오래된 예술로 붓으로 글씨를 쓰는 과정을 말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예술형식의 하나로서 한국 및 일본에 전래되어 한글을 예술적으로 종이에 표현하는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수양의 내면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며 사회와 뒤쳐져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먹을 갈며 명상하고 붓을 잡으며 자음, 모음 한글 을 한 획씩 호흡하며 수업한 결과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증가일로에 있어 이들에 대한 한글 보급 선양에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느껴 올바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세종의 한글정신 을 계승하고 있다. 심신을 편안하게하며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세종한글사랑 회에서는 세종의 끊임없는 넉넉한 애민정신을 묵묵히 실천해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서예정신치유수업,2016)



다문화가족(서예수업,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서예정신치유수업,2018)

12.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어와 한글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성장한나라라고 생각하면 너무 앞선 생각인 듯하다. 제도는 잘 이식될 수 있고 경제도 빨리 성장할 수 있지만 지식과 문화는 꾸준히 축적하며 국민의 기량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 천 자를 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품격과 아름다운 언어로 풍부할 수 있다.

세계 언어학자들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를 세계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요즘 줄임말이 유행처럼 번져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줄인 말은 본말을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는데 무차별하게 줄여 습관적으로 굳어가는 사회적인 풍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기에 시대에 따라바뀔 수는 있으나 개인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풍조가 우리말한글 국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언어에도 지켜야할 규범이 있어 우리글과 말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학자가 목숨처럼 아꼈던 한글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고 다듬어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지녀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본다.

세종한글사랑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한글문화예술 봉사에 힘쓰며 한글이 위대한 문자, 한국의 문자라는 정신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서예수업(2017)



세종영릉한글날체험(2018)

13. 여주시 문화에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

전국한글휘호대회는 이미 전국각지에 참신하고 격조 있는 행사로 알려져 먼 지역참 가자들에게 세종영릉이 있는 여주 방문을 늘리고 그들이 참여한 예술의 힘이 자양분이 되어 여주시 문화 발전에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세종한글사랑회는 전 국대회를 시작으로 문화재청 주관의 각종 문화예술교육을 받음으로서 휘호대회의 발전 을 더욱 기하고 있다. 매년 치루어지는 전국에서는 유일한 한글만의 행사로 세계적인 문화예술인 한글을 서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초청 전시와 교류방문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영릉을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 이며 실용적인 학문과 훌륭한 정치를 통하여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일상을 향 상시키려는 세종한글사랑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2017 효종대왕릉 서예전시



2016 세종대왕릉 재실 서예전시



문화재지킴이전국대회(2017)



문화유산다사랑보존회교육(2018)

14. 한글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

바른말과 바른 글씨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한다. 이 정신이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말, 우리 글이 더욱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민족의 자긍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전국행사와 전시교류로 이어가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세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며 거창한 말기술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세종한글사랑회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봉사의 정신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사)한국예총여주지회 세종한글사랑회



(사)한국예총여주지회 세종한글사랑회

맺음말

57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개최된 학술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창의적인 훌륭한 업적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유익한 자리이다.

또한 세종대왕 숭모제전이 열리고 세종의 숨결이 깃든 여주에 세종대왕 한글박물관이 설립되길 희망하고, 이를 통해 한글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아가길 바란다. 각계의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보급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의 이주민들에게도 쉽게 가르치고 익히며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활동여건 제공 등의 편의를 충분히 지원해나갈 필 요가 있다고 본다.

"한글로 이어지는 문명 문자 예술"에 대한 토론문

유돈석(문화유산다사랑보존회 이사)

제 573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기리는 세종문화재단이 주관한 학술대회 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누구나 방문하기 수월한 곳입니다. 특히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을 다지며 내려온 천년의 도자기로 유명해서 매년 열리는 도자기 축제는 국내 우수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나들이객들에게 성지로 불리우고 있는 세 계문화유산인 영릉을 비롯해 천년고찰 신륵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학산 수목원이나 여주곤충박물관 등 현장학습에 알맞은 관광명소가 즐비해 가족여 행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주는 예부터 진상미로 유명한 쌀농사와 오랜 세월 을 다지며 내려온 천년의 혼을 담은 도자기로 유명해서 매년 열리는 도자기 축제와 오 곡나루 축제는 지역문화를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의 야외 공연장은 도자의 진수와 풍성함과 흥겨움으로 시작된 각종 문화행사로 축제를 마 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민족의 위대한 혼이 깃든 한글이 있어 가능한 우리의 문화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그 민족의 말과 글이 있는 민족은 크게 흥하고 찬란한 문화가 있지만 말과 글이 없는 민족은 멸망했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우리말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한글이 있기에 우리는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주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계신 영릉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세종숭모제전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세종대왕한글휘호대회는 이제 전국에서 관심과 기대로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가 여주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은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자랑 거리라고 생각하면서 주관해주시는 세종한글사랑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일 현장에서 휘호와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신속하고 공정한 일정은 잘 알고 있지만 먼 거리에서(알기로는 제주, 부산, 함양, 강진 등) 오는 참가자들 대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영릉 일대에는 식당이 없는데 그 많은 참가자와 운영진들의 중식문제는 어떻 게 해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회의 부실성은 없는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한글을 서예술로 알리는 세종대왕 한글 휘호대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많이 참여시켜 한글 서예술을 장려 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전시되었던 조선시대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 이라는 기획전 은 우리 한글의 발달과정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문화이지만 여주시와 떨어진 거 리로써 자가운전자 외에는 일반 시민이 관람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여주시 지역에 전시장은 시급한 문제점으로 모든 시민들의 바램이 기도합니다. 세종의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굳이 영릉까지 가지 않더라도 타 지역인이 여주시에 도착하면 바로 세종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문화 전시공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기에 문화 전시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바른 글씨를 자주 접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화된 언어와 올바른 글씨를 사용하며 예절바른 생활도 익혀나갈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배우는 세종대왕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몸소 지켜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을 지닌 국민으로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도록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60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한글날을 단순 공휴일이 아니고구호성 행사가 아니라 소중한 한글날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 실천해가는 마음가짐을 가

져야합니다. 이에 세종대왕 에게 무례할 정도로 무분별한 외래어사용과 인터넷언어 사용은 올바른 한글보급에 안이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후속조치로 복원과 정비공사 (2017 ~ 2020)가 한창입니다.

영릉이 조속하게 개방되어 세종대왕님의 업적과 우리민족에게 한글창제는 얼마나 든 든한 역사적 자긍심인지 우리국민 모두가 날마다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늘 참신함으로 전국 참가자들과 관람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대왕 한글 휘호대회가 여주의 굳건한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방안

봉순이(세종한글문화포럼 이사장)

1.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세종의 백성을 위한 큰 뜻과 마음이 담긴 한글의 정체성을 디자인을 통하여 제시하고 한글문화산업을 여주시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여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여주가 한글문화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한다.
- 한글과 디자인을 접목한 한글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키고 시민들에게 한글디자인 도시의 비전을 보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주만의 트렌 드를 제시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 인식하고 한글을 접목한 문화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며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여가시간 및 레저 활동의 증가로 매년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문 화관광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 이에 여주가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한글문화도시로 여주를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한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이 고 지속적인 콘텐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한글전담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분고

2. 문화상품의 개념

문화상품이란 전통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결과물로써 생산되는 아이디어 집 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이며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말한다. 즉 한나라의 진 행중인 역사, 곧 생활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상품 가치로 극대화한 상품으로서, 한마디로 "한국 고유의 정통성을 지닌 공예품과 일상용품 등 관광객이 방문자에서 구입 또는 취득 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1996)

이는 고유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에 그 지역의 함축된 역사,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요소가 적용되어 정체 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규남,2004)

이처럼 문화상품은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으로 포괄하고 있어 범위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과 미적 기 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및 기술집약적 상품 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선희,2002)

문화 상품에는 그 지역의 특성, 문화, 전통, 의식 등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부여된 상품으로서 새로운 기능이나 이미지의 창출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상품과 구 별되는 차별성을 포함하며, 문화상품이 지니는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은 지역과 국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이장섭)

또한 그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풍속, 유적 등의 특성을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3. 한글 문양 및 한글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 한글문양

한글은 훈민정음의 현대 이름으로, 세종 28년 '훈민정음'으로 반포되었으나, 언문,

반절, 본문, 암클 등으로 속칭되기도 했고, 갑오경장 이후에는 국문으로 불리었다.

'한글'이란 이름은 처음 사용한 분이 주시경이며, 1927년 2월부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발행하는 월간지 이름을 '한글'로 정함과 동시에, '가갸날'날을 '한글날'로 고처기념식을 거행함을 계기로 이 이름이 굳어지게 되었다.(국어정책자료집, 문화관광부, 2004, 24P)

문양은 '문'의 반복에 의해서 구성되는 장식도형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그림의 도 안까지 포함시키는 범위로 지정 정의한다.(디자인공예사전,미술공론사,264-265p) 즉, 물체나 공상적 물상의 양식화된 형태로서 시대적, 사회적 질서 속에 전개된 조형 단위라 할 수 있다.(이선화,1991,텍스타일디자인,36p)

위 정의를 종합하여 한글 문양을 한글자음, 한글모음, 글귀, 단어을 활용하여 패턴을 만들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 지는 시각디자인을 적용해 물상에 양식화된 형태를 가리켜서 한글 문양이라고 정의한다.

2) 한글의 디자인적 특징

모든 디자인에는 형태적 발상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적 동기가 있다. 한글의 디자인적 동기는 자연과 사람에 있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적 동기는 추출의 근간은 동양 철학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역학이다. 한글에는 제자, 글자 운용 등에서 태극(太極), 음양(陰陽). 오행설(五行設) 등 동양철학의 큰 줄기를 배경으로 하는 동양적 우주관과 자연관을 포함하고 있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철학 사상은 역리(易理)에 근거한 우주론과 천인합일(天人合日)을 이상으로 하는 인간중심 사상으로 요약된다.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편저, 한글디자인교과서', 안그라픽스. 2009). 59p

창제 당시의 한글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글자로 만들어 졌다. 한글의 닿자와 홀 자는 조음 위치를 본뜨거나 자연의 모습을 본떠서 간단한 기호로 상징화 했다. 직선과 사선, 그리고 동글 이응으로 이루어진 네모진 글자체는 당시의 글씨 도구가 붓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기하학적 형태의 한글은 매우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다. 안상수는 한글의 형태 구조 분해를 통해서 세로줄기와 가로줄기, 빗금, 동그라미의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때문에 한글이 낱자의 확장이 쉬운 간결한 형태임과 동시에 그 공간적 특성의 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편저,'한글디자인교과서',안그라픽스.2009).70p,59-60p

3) 한글의 조형적 특성

한글의 구성 방법은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조형미를 갖춘 문자이다.

한글은 '•, -, $|_{\Delta \square \circ}$ ' 등의 형태를 지닌 기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기하학적으로 도형적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한글의 형태적 조형요소는 합리성, 순수성, 단순함, 명쾌함 등의 순수 조형미술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한글은 일정한 사각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형 문자이며, 네모, 세모, 원 등 어떠한 형태 안에서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에서 단순성과 다른 높은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글을 쓸 경우 좀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문자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유한한 수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이를 조합하여 쓰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어 내어 문자의 활용이 매우 효율적이며, 같은 공간에서 다른 문자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적은 공간만으로도 함축적 의미를 전달해 낼 수 있어 더욱 내재적인 의미가 깊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정진순, '한글을 활용한 작품디자인개발', 한국콘텐츠학회 학 술논문, 2012),104p

한글의 조형적인 특징은 닿자, 홀자, 받자 등이 개별적으로 분화했을 때 보다 그것들이 일정한 질서와 구조에 의해서 모아져서 의미를 이룰 때 의미표상으로서 글자꼴이조형적인 아름다움에까지 이어진다.(송현, 1985)

1. 한글 문화상품 현황

한글문화상품은 2016년 8월 기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 박물관 상품숍 입점 상품을 기준으로 분석, 전체 문화상품(11,115건) 중 약 4% 정도의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글문화상품의 51%가 문구사무 상품군, 패션/잡화 26%, 생활소품 13%, 의류 4%, 기타 6%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활용을 위한 실 태

현재 한글문화 상품은 훈민정음 해례 영인본, 미니어처 등 유물 복제품과 소장품을 그대로 디자인으로 사용한 경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해체하여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의미있는 단어나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사용한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한글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2016),316p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인, 관련단체, 쇼핑몰, 관련기관, 지자체 등 한글에 디자인 적용을 통한 문자 자체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재창조 되고 있다. 생활소품, 장신구, 패션, 가구, 폰트, 멀티미디어, 건축, 공공디자인 등 확대되어지고 있다.

현재 여주시는 한글문화상품 관련 전문 매장이 없는 실정이다.

11. 여주현황

- 1. 여주와 한글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 부족
- 2. 한글관련 문화상품 부재
- 3. 문화상품 판매 공간 및 시설 부재
- 4. 한글관련 문화 콘텐츠 부족

Ⅲ. 한글 문화상품 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제안

- 1. 여주와 한글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
-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글관련 프로그램 진행
- 도시 곳곳 한글관련 조형물 비치
- 한글관련 전시, 체험 개최

- 2. 한글문화상품 정책 실행의 일치성, 체계성, 정체성 확립
- 한글문화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인, 전문단체 및 관련기관, 산학 협력 체 계 구축
- 단기계획. 장기계획을 통한 지속가능 실행 지원 체계 구축
- 효율적인 한글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한글 전담 행정체계 필요, 지속적 연구 지원

3. 한글문화 콘텐츠개발 및 상품개발

- 차별화된 여주만의 한글문화제 및 한글관련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 지속가능한 한글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
- 세계인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 설치
- 세종대왕이 즐겨 드셨던 건강 밥상, 약선 음식 개발을 통한 먹거리 상품화
- 한글마을을 조성해 관광투어 코스 상품화
- 다양한 분야와 소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문화상품 개발

4. 한글관련 문화상품 마케팅 전략 마련

- 온라인 오프라인 활용
- 안테나 샵을 통해 관련 상품관이나 문화 공간에 입점 및 행사 참여를 통해 홍보
- 미디어 영상 제작을 통해 적극적 홍보

5. 한글관련 인프라 및 기업, 연구소 유치 및 설치

- 한글관련 예술인 및 기업인 유치 및 협업
- 한글관련 박물관 및 체험박물관 유치 및 협업
- 폰트 및 브랜딩 관련 인적자원 확보
- 한글문화산업센터 및 연구소 설치

Ⅳ 한글 응용 문화상품 사례

● 문구사무





◉ 패션 잡화





4. 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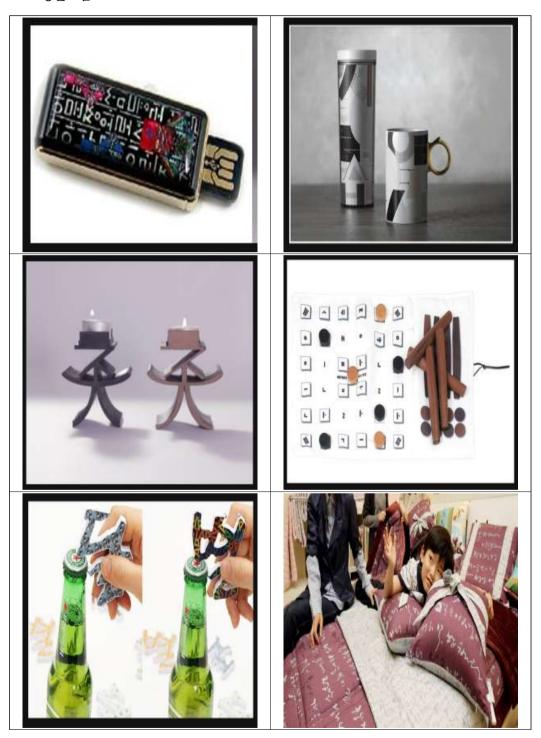








● 생활소품



4. 분과

◉ 패션 의류



⊙ 장신구







● 건축









⊙ 한글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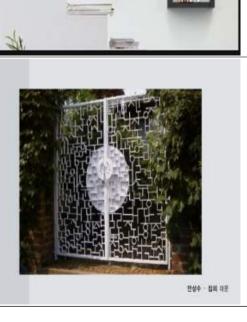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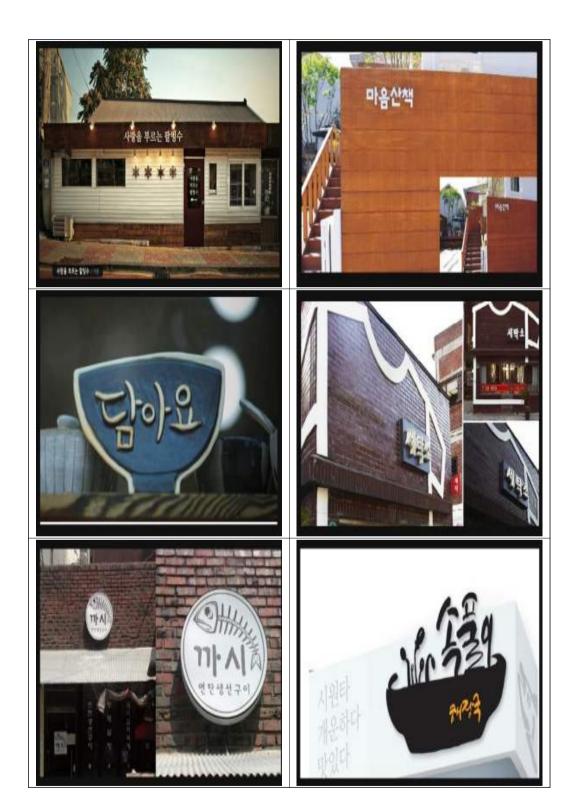


천년하류 단년사랑 - 정의원



⊙ 한글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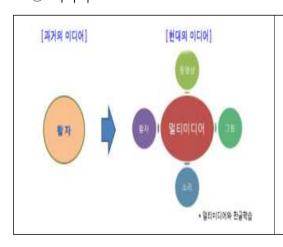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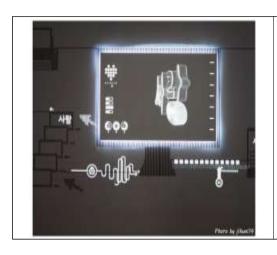




◉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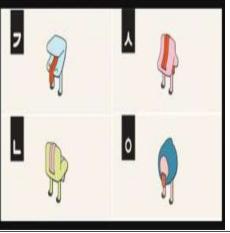


⊙ 기타











◉ 여주 개최 "전국 세종한글디자인공모전 문화상품 부문 수상작" 사례













◉ 여주 한글문화상품 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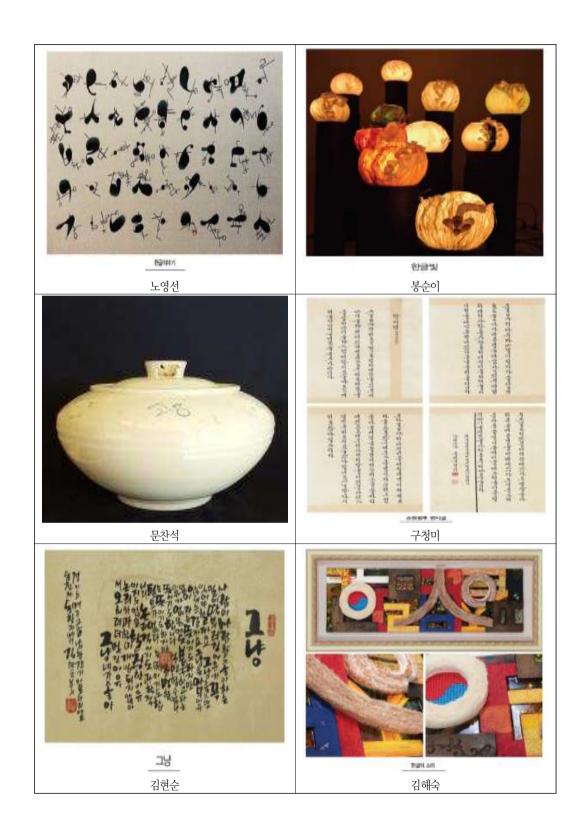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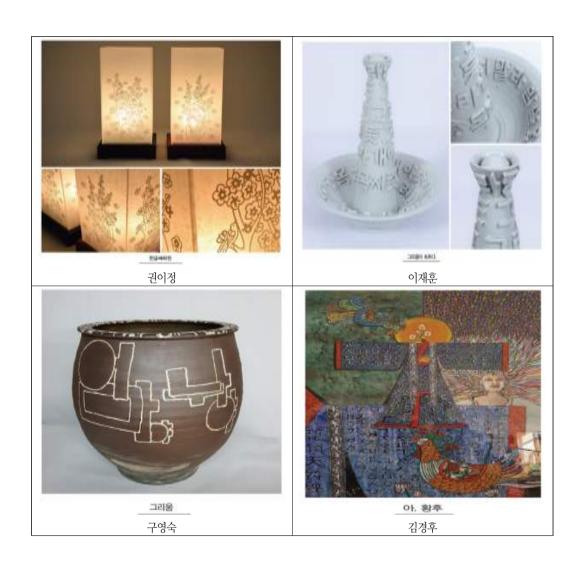




◉ 여주 개최 "한사랑 한글작품전" 전시작







V. 맺음말

한글의 쓰임은 과거의 고정관념인 언어로서의 기능에서 탈퇴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다채로운 소재들과 디자인 되어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을 살려 자.모음을 불리하거나 모아쓰기, 흘림표기, 직석, 사선, 동굴표기등 표현의 장을 확대해 가며 평면에서 입체 표현이 가능한 소재 및 요소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한글은 그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문구를 사용하여 디자인되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고 거리에 간판, 로고들이 최근 독특한 한글 표기등 영화나 포스터에도 아름다운 글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 되고 쓰이고 있다.

또한 한글이 가진 창의성과 산업적 기능성을 알고 다양한 분야에 디자이너, 예술인, 관련단체, 지자체 등 관심을 갖고 한글을 접목하고 디자인해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사 용하며 브랜드화를 하고 있다.

이에 한글의 언어적 우수성과 미적 아름다운 가치를 알고 여주만의 차별적 정체성을 가 진 한글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고 여주를 한글관광산업으로 활성화 시 켜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한글은 우리만의 고유 문화자산이다.

특히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한글을 통해 여주가 디자인되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한글도시로 재탄생 되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정체성이 살아있 고 일상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글문화 도시로 거듭나길 제안한다.

「한글문화 상품 개발과 공모전, 그리고 차세대 여주시민들의 먹거리 개발에 관한 제언,

정민세(해밀공방 대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는 지역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여 지역을 알리는 지역의 아이템들이 있다. 영광엔 굴비, 전주엔 비빔밥, 속초엔 오징어, 보령의 머드축제 등등. 그리고 그 아이템들은 국민적인 홍보로 자리를 잡으며 때마다 그 기간마다 전국 혹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관광문화 산업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주에도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 여주는 쌀, 고구마, 땅콩, 도자기 등의 아이템이 있으나, 쌀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브랜드가 생길 만큼 다양화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름까지 엇비슷하여 독특함과 지역 이미지를 만들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구마, 땅콩 등도 마찬가지이며 지역의 관광 자원들로 '여주'하면 떠오르는 곳은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럼 지역은 산업은 어떠한가?

얼마 전,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 '이천시'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에서는 반도체의 고장으로의 이천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주는 알릴 수 있는 산업으로 도자기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주고 있었으나 점차 도자 산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위상마저 이천에 많이 내어주어 요즘은 '도자기의 고장'하면 대부분 이천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현재 여주 내에서 도자기 산업의 가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쇄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주를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의 차세대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무엇이 있을까? 다른 지역에서 뺏어가려 해도 절대로 뺏을 수 없고, 모방하려 해도 모방했다는 것을 누구나다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아이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재료는, 여주가 세종 대왕님을 모

시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근거로 세종 대왕님의 애민정신이 스며있는 한글의 고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여주만의 유산이 있다. 그러나 전 국민 중, 세종 대왕님이 여주에 잠들어계신다는 것을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떠한 근거로 한글이 여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의 아이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는 여주 시민조차 얼마 없는 것이현실이다.

한글은 그 자체로 기초적인 조형미를 갖추고 있으며 변화무쌍한 범용성이 있고,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콘텐츠이면서 역량 있는 디자이너의 손을 통하면 변화무쌍한 아이디어 상품이 될 수 있는, 세종 대왕님께서 여주에 하사하신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글, 세종 대왕님과 아무런 관계도, 연결 고리도 미약한 지역에서 한글을 자신들의 지역 대표 이미지로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시에서는 어떠한가? 그런 소중한 콘텐츠, 타 지역에선 가질 수도 없는 귀한 콘텐츠를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을 알리거나 그에 관한 발전을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글이 있어도 역량 있는 작가와 디자이너들의 참여가 없으면,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스레 한글을 통한 상품과 작품을 개발하도록 지난 몇 년간 세종한글포럼이 진행했던 비영리사업이 '한글 디자인 공모전'이었다. 참여할 수 있는 범위나 예술의 영역도 제한이 없이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통해 여주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한글의 변용 가능함 속에 있는 조형물들의 독창적인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 개발 모임을 통해 뜻있는 작가들의 협업을 이루어 2018년, 한 해 동안 한글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한글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확인 했으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났다. 그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와 제품 개발이 그저 개발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여주시'에 제언한다. 한글 디자인 공모전과 한글 문화 상품 개발에 이제는 관이 힘을 보태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단기적인 결과물에 목매지 말고 10년, 20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고착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목표, 여주를 한글의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디자이너와 예술 작가들이 한글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

과 작품을 만들어 내면, 그 결과물들을 지역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시켜 여주의 곳곳에, 여주 시민들의 삶 곳곳에 한글과 세종 대왕님의 이미지가 스며들도록 하여 향후 10년, 20년 뒤에 '한글의 고장'하면 바로 여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낙후되어 가는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역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관이 나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더 이상 민간이 발전시켜온 사업을 위해 민간인들이 관을 찾아가 지원해달라고 사정하도록 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관이 나서서 민간단체를 찾아 나서길 바란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관이기에,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여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과 제언을 하는 바이다.

이미 세종한글포럼은 매년 회원 작가님들의 한글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벌써 3회째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을 못 하였다) 세종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여주의 전국적인 홍보와, 공모전실행의 노하우와 작가의 데이터, 작품의 사용 권한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 관의 손을 잡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진정 여주를 위하고, 여주 시민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여주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알았다면, 그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과 제언을 드리는 바이다.



고르게 행복. 다함께 평화

장주식(여강길 상임대표)

1. 들어가며

지독한 불균형의 시대다. 현재 지구는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120억 인구가 먹고 도 남을 식량을 생산한다. 그런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쓴 유엔 최초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이렇게 절규한다.

"나는 5초마다 아이 하나가 굶어 죽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등 몇몇 나라에서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죽어간다. 현존 인구에 거의 두 배가 먹을 식량이 생산되는데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장 지글러는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야만적인 자본주의 시 스템, 무소불위의 사유재산 개념이 만들어놓은 덫'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으로 범위를 좁혀보자. 현재 한국에선 기아에 허덕이다 굶어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굶어죽게 하는 경우는 있다. 2019년 7월 31일 한 달 만에 아사자(餓死者)로 발견된 탈북민 모자가 그런 경우다.1) 굶어죽는 경우까지는 아니라도, 소득불균형이 삶의 질을 떨어뜨려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예술인이다.

^{1) (}배곯는 모자를 우리는 방치했다)가사 참고, 시사IN 624호. 2019년 9월 3일자.

노래나 춤, 그림이나 문학 등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른다. 배가 등가죽에 가서 붙었는데 무슨 예술타령이냐, 하고 사람들은 타박한다. 예술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하는 것처럼 치부한다. 그런데 실제를 들여다 보면 그 반대다. 현재 우리나라 수많은 예술가들은 몹시 배가 고프다. 연간 수입이 300만원도 안 되는 예술가들이 대부분이니 배가 등가죽에 가서 붙은 이들이 예술을 하는 셈이다.

이유는 생산적인 예술이 되지 못해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했다.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을 자극'하는 요소로 개념화한 말이다. 기본 삶이 보장될 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기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자신감은 당연히 의미 있는 생산력으로 치환된다. 보편복지가 생산력을 추동하는 생산적 복지가 되는 것처럼 보편복지는 또한 예술생산을 자극한다. 다양하게 생산된 예술은 또 생산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예술을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다. 예술은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 생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그렇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자본소득은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분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면 자본소득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 분배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땅, 건물, 동산 등 자본이 무지막지하게 늘려가는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위험해 질 수 있다.

소득불균형은 국민들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아무리 노동 강도를 올려도 소득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고급화하는 예술가들이 가장 위기상황에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예술가의 활동이 적절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가 그 문화예술을 행복하게 소비할 때 삶은 아름다워진다. 물론 소비는 한 사회가 얻은 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불평등은 불안정성을 부르고,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사회가 붕괴하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세종이다. 세종은 백성의 보편복지를 위해 평생 노심초사한 인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인 '한글'도 세종의 보 편복지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물론 그 뿌리는 '애민'이었다.

이 글은 세종의 '애민사상'을 공자의 '균무빈'사상과 연결시키고, 위대한 창조물 '한

글'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세종의 이러한 문화예술관을 지금 여주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공자의 균무빈(均無貧)과 세종의 애민사상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현모 교수는 세종을 호학군주이며 토론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문과 과학, 음운론까지 다방면 식견을 갖춘 팔방미인형 지식인이며 성군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²⁾

'배움을 좋아하는' 호학은 공자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한 말이다. 공자는 이런 말까지 한다.

"열 집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도 반드시 나처럼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호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논어, 옹야편)

공자는 겸손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논어 전편을 통해서 호학은 끊임없이 변주 된다. 사실 논어는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논어』를 끼고 살았다고 한다. 한글을 창제하고 언해본을 만들때 불경과 함께 논어언해를 가장 먼저 만들 정도로 논어에 대한 애착이 컸다. 논어를 읽고 또 읽으면서 공자는 자연스럽게 호학하는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논어는 공자의 정치철학이 담긴 책이다. 공자의 정치철학은 '예악정치'또는 인정(仁政)으로 개념화 된다. 제자들이 인(仁)에 대해 질문하면 공자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또는 '사람을 아는 것'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것' 등 다양하게 대답한다. 제자 번지가 질문했을 때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자의 인 사상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 드러난 말이 '균무빈(均無

²⁾ 박현모 〈주간동아〉 2019.1.17. 『정조평전』 출간인터뷰

貧)'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걸 근심해야 하며, 가난을 근심하지 말고 불안을 근심해야 한다. 무릇 고르면 가난이 없고 조화되면 적지 않으며 평 안하면 기울어지지 않는다." (子曰,有國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貧而患不安,蓋均無貧,化無寡,安無傾.〈논어〉게씨편)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 군주들은 '더 많이, 더 넓게'를 추구했다. 영토 확장과 백성 늘리기와 재산 축적이 군주들의 지상과제였다. 현재 자본이 추구하는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이때 공자는 제동을 건다. 끊임없이 '더, 더'를 추구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평화가 깨지며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해법으로 '고르게 하는 일'을 제시한다. 고르게 하면 불안의 원인인 가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균무빈'이다. 당시 군주들은 공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논어를 탐독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했다. 세종은 1421년, 호조에 이런 명령을 내린다.

"장마가 너무 심하여 쌀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軍糧)의 묵은 쌀 1만석으로써 민간의 저화(楮貨)를 사서 가난한 이에게 먼저 지급하라."3)

군량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먹이라는 어명이다. 군량이 무엇인가? 전쟁을 위해 비축해 둔 것이니 영토를 확장하려는 군주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종이어떤 내면을 가진 임금인지 잘 드러나는 명령이다. 더구나 쌀을 그냥 주지 않고 민간의 저화를 사서 주라는 말은 몹시 친절하다. 집집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를 수 있기때문이다.

세종실록을 검색해보면 '가난'과 관련한 기사가 128개나 뜬다. 집이 가난하여 혼인 하지 못하는 남녀가 있으면 친척은 물론 가까운 동네 사람들도 재물을 나눠 혼인할 수 있게 하라는 어명도 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은 실록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뿌리는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현실정치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2권, 세종3년 6월 19일자.

교무빈 사상은 20세기 초 중국의 양계초(梁啓超·1873~1929), 현대 영국의 가이 스탠딩으로 이어진다. 양계초는 불교의 자비, 유교의 '균무빈 · 화무과'(均無貧·和無寡: 평등한 분배의 이상), 도교의 지족(知足) 사상만이 세계를 서구식 폭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이었다.4)

가이 스탠딩은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공자의 균무 빈을 얘기한다.5)

세종은 또한 토론의 달인이기도 했다. 토론이 왜 중요한가? 토론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창조적인 마찰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글을 보자.

〈그는 회의를 하면 꼭 싸움을 붙였다. 창조적 마찰을 조장한 것이다. 사용한 방법은 '견 광지(絹狂止)'였다. 견은 '하지 말자'라는 뜻이 있다. 반대라는 것이다. 광은 '해보자'라는 뜻이 있다. 찬성이라는 말이다. 둘 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지는 '잠깐 쉬어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경연에서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다. 집현전 학자들은 "해 봅시다"라고 우겼다. 세종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해볼 만하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할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다.〉이

이홍 교수는 이것을 '창조적 마찰'이라고 말했다. A와 B가 부딪쳐 C를 만들어낼 때 창조적이라고 한다. C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내는 한 걸음일 가능성이 높다.

공자도 제자들과 토론을 즐겼다. 때로는 제자의 논리에 밀리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아인데 세종에게는 고약해(高若海 · 1377-1443)가 있었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사헌부에서 이중위(李中位)가 본처를 소박(疎薄)한 죄를 핵문(劾問)하기를 청하니, 임 금이 말하기를,

^{4) &#}x27;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박노자 / 작성자 김갈맥'에서 재인용.

⁵⁾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창비

⁶⁾ 이홍(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창조습관으로 10년 후를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 중에서. 2015년 1.15) [출체 세종과 관련된 분석]작성자 Gauss

"옛날 공자와 자사(子思)도 다 아내를 내보냈으나, 그 까닭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유 (先儒)들이 충후(忠厚)한 처사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한때의 분노와 자질구레한 일로써 그 아내를 소박하고, 그리하여 담당 관사(官司)에서는 죄다 핵문(劾問)하여 부부(夫婦) 사이의 은미(隱微)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폭로하니, 정사를 하는 체통에 어떠하겠는가."하니. 지사가(知司諫) 고약해(高若海)가 말하기를.

"본처와 첩이 순서가 있으면 가도(家道)가 바로 서고, 순서를 잃으면 가도는 문란하여집 니다. 첩으로 주장을 삼고 본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따지어야 합니다."〉가

세종은 토론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고약해를 두고 "아이고 고약해, 고약해."라고 머리를 흔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논리를 충분히 펴도록 할 때 창조적인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을 세종은 잘 알았다. 오늘 발제도 창조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를 필자는 바란다.

3. 한글과 보편적 문화향유권

세종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한 것이 한글창제다. 한글은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문자라고 세계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극찬한다. 특히 시카고대 교수제임스 멕콜리(J.D.McCawley)는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한국인들이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어학적 수준에서 보아도 그들이 창조한 문자체계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다."8)

맥콜리 교수가 자기 집 거실에 세종대왕 사진을 걸어놓고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도 있다. 언어학자로서 세계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셈이다. 한글에 대한 감동과 극찬을 모아 얘기하다

⁷⁾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2월 5일 경오 3번째 기사 1425년

⁸⁾ 별공의 블로그 〈인류 신문명의 놀라운 비젼과 대변혁 이야기〉에서

보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다.

나는 한글이 가진 또 하나의 위대한 측면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싶다. 언어가 무엇인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세종은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훈민정음 어제서문(御製序文)을 보도록 하자.

〈나랏:말쌋·미

中듕國・귁・에달・아

文문字·쫑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씨

이런젼·츳·로어·린百·빅姓·셩·이니르·고·져·홇·배이·셔·도

모·춤:내제·ᄠ·들시·러펴·디:몯홇·노·미하니·라

·내·이·롤爲·윙·호·야:어엿·비너·겨

·새·로·스·믈여·듧字·쫑·롤밍·フ노·니

:사름: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뿌·메便뼌安한·킈호·고·져홇ᄯ르·미니·라〉

소리 내는 말과 그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달라 서로 통할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을 일반 백성으로 본 것이 세종의 훌륭함이다. 한자를 배운 귀족은 문자를 권력으로 삼았다. "이런 무식한 놈들!"하면서 문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귀족들은 쉬운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게 된다.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새 글자를 만든 까닭이 어제서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놈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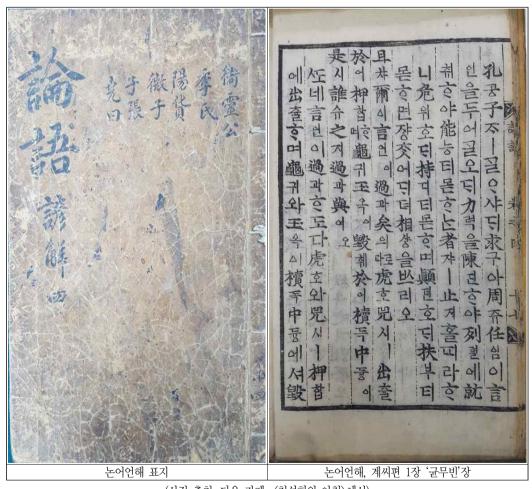
탁월한 공감력이다. 제왕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대궐 현판에 붙어 있는 어진 정치라는 '인정(仁政)'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는 모습은 이런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음'이 인의 출발이지만 '남이 아파하는 것을 공감함' 또한 인의 다른 이름이다.

백성들 말문을 틔워주는 건 독재자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열린 입도

자물쇠를 채우려 든다. 그런데 세종은 양반들 권력의 도구였던 문자를 대중화하였다. 누구나 쉽게 문자를 익히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 것이다.

쉬운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이제 일반 백성들도 고급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불경, 논어, 맹자 같은 경전을 가 장 먼저 언해 한 까닭이 거기 있다.

〈논어〉는 조선 선비들이 성인으로 떠받들었던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그 경전을 무지렁이 백성들이 '언문'으로 읽는다니!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양반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사진 출처, 다음 카페, 〈청석헌의 아침〉에서)

그러나 세종은 보편성을 추구했다. 인간이 제도화한 신분을 넘어 본래 위아래가 없이 평등한 인간세상. 세종이 추구한 사회는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공자가 추구한 세상도 그랬다. 모두가 고르게 행복하고 다함께 평화로운 대동세상. 하지만 소유물이 생겨나고 소유물이 편중되면서 권력자가 발생하고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고착화된다.

권력자는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만들고 실천한다. 한번 지배구조가 완성되면 좀처럼 깨지기 어렵다. 문자습득 유무도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

세종이 '누구나 쉽게 익히고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문자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누리도록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 부르고 싶다.

4. 여주시의 보편적 문화향유권

그렇다면 여주시는 보편적인 문화향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여주는 세종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세종이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의 친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세종과 인연이 가장 깊은 도시라고 할만하다.

'세종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여주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먼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그것을 '문화수당'으로 제안을 해보고 싶다.

문화수당은 말 그대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수당이다. 수당이란 기본급외 에 특별하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금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문화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거의 유일하다. 신문 [헤럴드 경제]는 〈이탈리아도 청년수당 63만원, 18세 시민 57만 명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이탈리아도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만 18 세를 맞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500유로(약 63만원) 씩을 나눠 준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18app'이라는 이름 아래 18세가 된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500유로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급되며 내년 말까지 극장과 박물관 입장권, 전시나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정부 예산 2억9000만 유로(약 3675억원)가 책정된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57만 4000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18세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24일자)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사진과 함께 문화수당 지급 홍보물을 만들었다.



(사진출처. 좌, 블로그〈온고을 장목사의 말씀묵상과 樂書의 記錄〉우, 뉴시스 2019.7.23. 일자.)

'컬튜럴 보너스(Cultural Bonus)'라는 이름을 달았으니 청년수당이라기 보다는 문화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용처도 제한했으니 더욱 그렇다.

내가 제안하는 문화수당은 이탈리아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다. 문화는 사람의 '생활양식'에 해당하므로 문화수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상황에 소비가 가능하다.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금액	월 1만원, 연 12만원	
지급대상	여주시민 전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예산 약132억 (여주시 전체예산의 약1.62%)
지급시기	분기별 3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 10세 이하는 보호자 1명을 지정하여 입금.
사용처	의식주 등 모든 생활에 가능	
재원	2020년 단기 -인상되는 지방소비세(현15%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여주시민을 11만 명으로 보면 문화수당으로 연간 예산이 13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금액을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여주시 전체 예산 8000억의 약 1.62%에 해당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액수이다. 다만 문제는 이 문화수당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수당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다.

- * 김여주씨 네 (5인 가족 : 80대 할머니, 50대 김여주씨 부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 할머니는 특별히 쓸 곳을 찾지 못해 12만원을 통장에 고스란히 모았다.
- 김여주씨 부부는 가을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오페라(로얄석, 8만원)를 보고, 전당 내에 있는 레스토랑 모차르트에서 저녁식사를 했다.(식사비용, 총 7만원). 연간 문화수당으로 받은 12만원, 부부합산 24만원에서 각각 5천 원씩 1만원이 남았다.

- 대학생 아들은 평소 사고 싶었던 음반을 망설임 없이 샀다.
- 고등학생 딸은 떡볶이를 사 먹고, 노래방도 가고, 머리핀도 사고, 돈이 입금되자마 자 다 썼다. 엄마 눈치 볼 것 없이 내 권리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 * 최린씨 네 (4인 가족, : 30대 최린씨 부부, 초등학교 2학년 딸, 유치원생 아들)
- 최린씨 부부는 아이들 용으로 나오는 문화수당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논의 끝에 유니세프 아동유엔기금에 월 2만원씩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다. 분쟁지역 어린이 약 20명에게 영양실조치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부부는 아들 딸이름으로 후원약정을 쓰고 나니 가슴이 뿌듯했다.
- 부부에게 각각 나오는 문화수당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자금 으로 착착 모아 나가고 있다.

* 이미정씨 (1인 가족)

- 이미정씨는 27살 여성이다. 직장이 여주에 있어 혼자 자취를 한다. 문화수당을 받는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밥도 사고 술도 사라고 아우성이다. 졸리다 못해 한번 거하게 저녁을 샀더니 일 년치 문화수당보다 더 나왔다. 괜히 문화수당 받는다고 툴툴거렸더니, 친구들은 호강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퉁을 준다.한 친구는 여주로 이사를 올까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말했다.

* 여강밴드 (5인조)

- 여강밴드는 결성 된지 6년차 5인조 밴드인데 연습실 마련에 늘 골머리를 앓는다. 여주 한글시장 옆 지하에 얻은 연습실은 월세가 30만원, 전기세 등 관리비가 월 5만원쯤 나온다. 아쉬운 대로 맴버들 문화수당을 다 합치면 월 5만원이 되어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 문화수당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날 신이 나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몇몇 사람들 문화수당 사용을 예상해 봤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 천차만별 사용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문화수당을 사용한 후기들을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12월에 후기들 중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글을 뽑아 시상을 한다거나 흥겨운 잔치자

리를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후기들은 문화수당을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나가면 좋을 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정책은 과감하게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더구나 문화수당은 어디로 세는 돈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민이 쓰는 돈이다. 선순환이 된다면 여주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경제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다. 사용처도 크게 걱정 할 것이 없다. 이름이 문화수당이므로 당연히 '문화'에 지출이 집중 될 것이다. 문화에 집중된 소비는 당연히 문화예술인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창작욕을 자극할 것이다.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은, 이 문화수당에 어떤 조건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건을 거는 순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연령별, 재산소유별, 소득상 황별 등 어떤 조건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제한이 되면 이 조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이런 비용은 월 1만원의 문화수당을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도 여주시 문화수당에는 붙어서는 안 된다.

여주시 문화수당은 세종이 염원했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작은 걸음이다. 그러나 위대한 걸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 마틴 루터 킹 (1929~1968) 목사는 1967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 보상이 확산되면 틀림없이 수많은 긍정적 심리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손에 있고, 자기 소득이 안정적이고 분명하며, 자기증진을

추구할 수단이 있음을 알 때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다. 돈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불의가 사라지면 가족들 사이에 인격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겨우 월 1만원이지만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수단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심리변화가 올 것은 분명하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매월 작은 금액을 보장해줬더니 스스로술을 줄여갔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9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다.

기본소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⁹⁾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2012년-2014년 실험. 성인 1명에게 매월 300루피(한화 5200원, 인도 당시 일인당 국민소득의 약 3% 금액) 지급.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60-64 참조)

학자 가이 스텐딩은 이렇게 말한다.

"기본소득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필수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가 된다." 10)

공자가 말하는 균무빈 곧 '고르면 가난이 없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권리를 고르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재산의 원천인 지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지구라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불평등은 개인이나일부 그룹이 소유를 독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구상 모든 생산물은 공유부이며 공유 재산이라는 사상에 동의할 때 공자의 균무빈 사상 역시 의의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여주문화수당은 재산공유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작은 샘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고르면 가난이 없고, 나누면 적지 않고, 편안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¹⁰⁾ 가이 스텐딩,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72쪽

"고르게 행복, 다함께 평화"에 대한 토론문

박영민 교수(여주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사상적 배경〉

여주의 자랑거리중 하나가 세종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세종의 삶을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 나아가, 세종은 [이하 장주식 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세종이다. 세종은 백성의 보편복지를 위해 평생 노심초사한 인물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인 '한글'도 세종의 보편복지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물론 그 뿌리는 '애민'이었다.

이 글은 세종의 '애민사상'을 공자의 '균무빈'사상과 연결시키고, 위대한 창조물 '한글'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세종의 이러한 문화예술관을 지금 여주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논어』를 끼고 살았다고 한다. 한글을 창제하고 언해본을 만들 때 불경과 함께 논어언해를 가장 먼저 만들 정도로 논어에 대한 애착이 컸다.

세종은 또한 토론의 달인이기도 했다. 세종은 토론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고 약해를 두고 "아이고 고약해, 고약해."라고 머리를 흔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논리를 충분히 펴도록 할 때 창조적인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을 세종은 잘 알았다.

나는 한글이 가진 또 하나의 위대한 측면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싶다. 언어가 무엇인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세종은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세종은 보편성을

추구했다. 인간이 제도화한 신분을 넘어 본래 위아래가 없이 평등한 인간세상. 세종이 추구한 사회는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공자가 추구한 세상도 그랬다. 모두가 고르게 행복하고 다함께 평화로운 대동세상, 하지만 소유물이 생겨나고 소유물이 편중되면서 권력자가 발생하고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고착화된다.

세종이 '누구나 쉽게 익히고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문자가 만들어가는 문화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누리도록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보편적 문화향유권 보장'이라 부르고 싶다.

장주식 님은 한글의 창제 정신을 오늘날에 오롯이 구현하는 것을 "보편적 문화향권"이다 라고 구체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좋은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학의 인내천과 물경 사상도 세종정신과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해월 최시형 선생이 여주에서 숨어 지내면서 귀중한 설법을 펼치었고, 나중에 금사면 주록리에서 영면하고 있는 것도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월사상은 원효 이황 사상이 저류에 흐르고 있듯이 세종 정신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천민(天民)과 대천이물(代天理物) 의 정치사상을 보면 "백성은 빈부귀천없이 누구나 다 하늘로써 비롯된 천민으로 간주 하였고"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니 마땅히 하늘의 도를 순종해야 한다" 등이다. 이외에도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민심까지 헤아리는 민생해결,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소통교화의 정치를 펼치었다. 세종과 해월사상의 한글창제에도 그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장 1〉

'세종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여주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먼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그것을 '문화수당'으로 제안

을 해보고 싶다. 문화수당은 말 그대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수당이다. 수당이란 기본급외 에 특별하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현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금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문화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거의 유일하다. 18세 한정, 극장과 박물관 입장권, 전시나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항목	내용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금액	월 1만원, 연 12만원	
지급대상	여주시민 전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예산 약132억 (여주시 전체예산의 약1.62%)
지급시기	분기별 3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 10세 이하는 보호자 1명을 지정하여 입금.
사용처	의식주 등 모든 생활에 가능	
재원	2020년 단기 -인상되는 지방소비세(현15%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문화수당을 사용한 후기들을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12월에 후기들 중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글을 뽑아 시상을 한다거나 흥겨운 잔 치자리를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후기들은 문화수당을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나가 면 좋을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기본소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공자의 균무빈 사상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학자 가이 스텐딩은 이렇게 말한다. "기본소득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필수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가 된다." 1)

〈대안제시〉

아이들이 사라지는 여주시, '인구절벽' 위기18세 이하 4% 가까이 줄고, 65세 이상 3% 이상 늘어

여주신문 박관우 기자

2019년 8월말 기준 / 2018년 12월 대비 동·읍지역 7만3002명, 나머지 8개 면지역 합해 3만8093명

	8월말	0세~18세	감소	비율	65세 이상	증가인수	증가율	65세비율	18세이하대비
오학동	16,252	3,389	-10	20.85%	1,877	98	5.51%	11.55%	55,39%
강천면	4,133	366	-11	8,86%	1,227	48	4.07%	29.69%	335,25%
북내면	4,949	508	-10	10.26%	1,469	36	2.51%	29.68%	289,17%
금사면	2,990	218	-17	7.29%	974	29	3.07%	32.58%	446,79%
여홍동	22,175	3,634	-178	16,39%	3,430	128	3,88%	15,47%	94,39%
산북면	2,572	262	-13	10,19%	816	18	2,26%	31.73%	311.45%
농서면	6,502	712	-23	10,95%	1,910	82	4,49%	29,38%	268,26%
가남읍	15,663	2,343	-146	14,96%	3,080	89	2,98%	19,66%	131,46%
중앙동	18,912	3,636	-195	19,23%	2,500	114	4,78%	13.22%	68,76%
흥천면	5,053	462	-14	9.14%	1,582	18	1.15%	31.31%	342,42%
검동면	4,675	458	-36	9.80%	1,495	145	3,10%	31.98%	326,42%
대신면	7,219	641	-29	8.88%	2,321	17	0.74%	32.15%	362.09%
총계	111,095	16,629	-682		22,681	722	3.29%	3	30

¹⁾ 가이 스텐딩,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72쪽

여주시의 전체 인구수가 20여 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 18세 이하, 15%선 깨졌다.: 어린이, 젊은이들 사이에 매력 없음
- △ 여주시 초고령화 사회진입 20% 넘어: **노인들의 정주 여건 좋아짐. 은퇴자 마을 지원부서**
- △ 젊은 인구 줄고 노인층 증가
- △ 오학과 강천은 인구증가, 북내는 그대로, 그외 지역 인구 감소: 젊은이, 원주민들 오학으로 이주, 도시민들 강천으로 이주현상.
- △ 지역별 인구편중 심각: 자연스런 현상
- △ 세대는 증가 곧 **5만세대 도달**, 가구당 인구 2.23명
- △ 일자리와 재정 확대 절실: 별 다른 정책 어려움.

대안:

- 1. 여주시의 인구구성비를 개선하는 것 보다 더 근본적이며 원론적 대책 강구
- 2. 도시 소멸을 대비하는 여주로 이주해오는 장년층을 겨냥한 획기적 지원책 필요함
- 3.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년들을 위한 문화수당으로, 여주사랑카드에 적립 금으로 지급
- 4. 수당 지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유발하는 시스템 필요
- 5. 세종의 독서, 토론 문화 계승: 시민 독서모임 지원하여 권장
- 6. 지역 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작품 구입지원책(예 도자기 작품 구입비)
- 7. 소규모 문화예술동아리 지원방안 개선: 초기 3년간 우대

여주시 여주문화수당의 개요 개선안

항목	પાંક	비고
수당이름	여주문화수당	
금액	월 2만원, 연 24만원	단계적 인상
지급대상	여주시민 장년(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예산 약66억 (여주시 전체예산의 약0.81%)
지급시기	분기별 6만원씩 지급(1월, 4월, 7월, 10월)	통장 계좌이체
사용처	문화생활에 국한(도서, 음악, 커피등 분야 한정)	여주사랑카드 결재(이용 가능 업체 미리지정)
재원	2020년 단기 -인상되는 지방소비세(현15%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중장기는 논의
사용 후기 작성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 연말에 우수 후기 선정

각종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국가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여러 제도를 진행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문화 바우쳐 사업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현 여주시/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수당제도

- 1. 생리대 지원 사업 [만11~18세 여성 청소년]
- 2. 농민기본수당, 경기도와 함께
- 3. 청년수당 경기도 전역 시행중
- 4. 노인수당 전국민 대상 시행중
- 5. 반값 등록금 지원, 소득분위 대상 확대
- 6. 문화 바우쳐 사업

7. 여주세종문화재단 에술문화단체 지원사업

8. 경기도내 시, 구청에서 인문독서동아지 지원사업

지급방법 : 여주에서 실시중인 지역경제 화폐인 여주사랑카드 적극 활용

핵심체크사항: 활용되는가?. 전달되는가?

〈추가 제안〉

1.외국인들에게 한글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

2.국제 한글 작가대회를 후원 하거나 한글 선양하는 작가 및 예술가 시상

예)2018년 4회째를 맞은 세계한글작가대회(회장 김홍신 작가)는 국제펜클럽한국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18개국의 문인, 한글 학자와 전문가 등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한글문학 컨퍼런스다.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한글문학-민족혼의 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화일보 2018)

